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가 열립니다

(개정 예술인 복지법 2020.6.4. 시행)

## 계약서, 작성하셨나요?

예술활동 관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거나(구두계약, 무계약) 예술인 복지법에서 정하는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계약 건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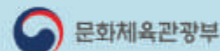
##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

계약서 미작성 신고부터 불공정행위 신고, 계약서 작성 검토, 법률상담, 찾아가는 교육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한 번에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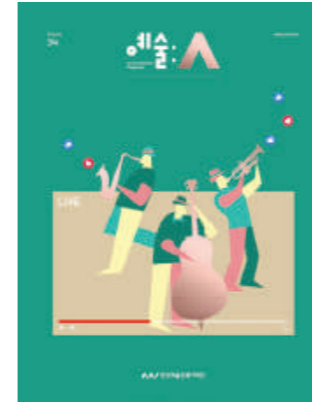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신문고  
www.kawf.kr 02-3668-0200

## 서면계약, 예술을 키우다 예술인을 지키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 Cover Story

마주보지 못해도 예술인들은 예술의 가치를 전합니다. 함께하는 호흡을 느끼지 못해도 예술인들은 위로를 전합니다.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예술은 계속됩니다. 서로가 힘이 되어 극복할 날을 위해 예술은 오늘도 멈출 수 없습니다.



Volume. 34

발행 2020년 7월 27일

발행인 정희섭

편집인 정철

발행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소 03088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전화 02-3668-0200

홈페이지 www.kawf.kr

기획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책기획팀

편집·디자인 오즈커뮤니케이션 02-515-3681

비매품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본지에 실린 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Contents

### 코로나19와 예술인의 삶

02	프롤로그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때
04	비온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예술은 어떻게 대처해 왔을까?
08	예술인 인터뷰①	'코로나19'로 '예술계 119'가 필요하다
12	예술인 인터뷰②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꿈꾸며
16	예술인 칼럼①	'코로나19'의 오늘과 이후의 과제
18	예술인 칼럼②	코로나19와 지역의 문화예술
20	예술인 칼럼③	코로나19 사태로 고통 겪는 공연계를 살펴보다
22	예술인 칼럼④	예술인 심리상담으로 극복하는 코로나 블루
24	에필로그	여러분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26	예술과 노동①	음악생태계 당사자들의 '선(善)한 목소리'
28	예술과 노동②	결국, 문제는 법이다
30	예술과 노동③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적용법〉에 담긴 시대정신과 의미
32	예술과 노동④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적용법〉 통과, 다시 예술인의 목소리에 주목할 때
36	신진예술인①	행복한 예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시작이다
40	신진예술인②	법률과 소설 사이, 2% 다름
42	예술인 앞과 뒤	빛과 색의 마법사
50	KAWF 레시피	엄선된 재료만을 고집하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52	KAWF 데스크	코로나 블루, 함께 이겨내요
54	KAWF 상담실	
56	KAWF NEWS	
58	예술인패스	

#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때

일상이, 멈췄습니다.  
연극이 끝난 것처럼.  
영화관이 정전된 것처럼.  
연재소설이 중단된 것처럼.



그리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 시대의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를.  
우리 사회의 빈 틈이 어디였는지를.



일상이 보통으로 여겨지는 날,  
도란도란 밥 먹고,  
두근두근 예술을 즐기는 날,  
그런 당연한 날들, 회복되겠지요.

그때까지 우리 시대  
예술가들 모두 무탈하길.  
동시대인들 모두 안녕하길.

## 역사 속

# 팬데믹 시대의 예술은 어떻게 대처해 왔을까?

양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이론과 교수

우리는 '자가격리에 최적화된 민족'이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다. 무슨 말인지 묻자 단군신화가 증거 아니냐고 되묻는다. 그러니까 동굴 속에서 마늘과 쪽으로 백일을 버틴 민족이니 2주 정도의 자가격리쯤이야 식은 죽 먹기라는 것이다. 별로 웃을 일이 없는 요즘 단군신화까지 꺼내면서 우리 민족이 자가격리에 강한 내성이 있다고 말하는 녀석 좋은 친구가 곁에 있으니 우울했던 마음이 다소 가벼워지는 것 같다.



## 팬데믹의 역사에서 배우는 문화예술계의 미래

어느덧 국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석 달째가 되고 있다. 3월 22일부터 시작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도 2주 단위로 계속 갱신되는 가운데 우리가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바뀌고 있다. 다행히 국내의 상황은 다소 나아지는 것 같지만 다른 나라에서 들려오는 공포스런 뉴스는 여전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충분해 보인다.

여기서 발표되는 경제지표마다 마이너스가 이어지는데 만약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표가 있다면 그 수치는 실물 경제보다 더 가혹할 것이다. 공연계와 영화계, 그리고 미술계 모두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고 할 수 있다. 과연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문화예술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과연 우리는 과거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쩌면 과거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사실 지금 코로나19처럼 전 지구적인 대역병은 과거에도 있었다. 예를 들어 중세 유럽을 초토화한 흑사병이나 20세기 초에 불어닥친 스페인 독감은 전염력이나 치사율에서 코로나19보다 더 파괴적이었다. 따라서 이 두 역사적 사례는 다소나마 우리에게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항방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 예술의 사회적 존재방식의 변화를 이끈 사회적 거리두기

1347년부터 유럽을 강타한 흑사병은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염병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 유럽 인구의 절반 정도가 이 흑사병으로 사망한다. 병에 걸리면 시신이 검게 타들어가면서 엄청난 고통 속에서 죽는다고 해서 '흑사병(Black Death)'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을 갖게 되는데, 전염력도 엄청나서 당시 기록에는 눈만 마주쳐도 옮는다고 적고 있다.

당시 이 병마에서 벗어나는 길은 도망밖에 없었다. 일단 이 병이 도시나 마을에 들어오면 시골이나 인적이 없는 곳으로 피난만이 살 길이었다. 결국 지금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자가격리나 사회적 거리두기는 가공할 전염병 앞에서는 역사적으로 필수적이고 유효한 조치였던 것이다. 사실 격리를 뜻하는 영어 '과란틴(quarantine)'이란 용어도 이때 이탈리아에서 유래하게 된다. 흑사병 이후 이탈리아 베네치아 정부는 외부로 들어오는 배에 대해 40일간 격리조치를 취했는데 40일을 뜻하는 이탈리아어 '과란타(quaranta)'가 격리를 뜻하는 용어로 정착하게 된다는 것이다. 중세문학을 대표하는 『데카메론』도 자가격리 중에 나온다. 흑사병이 피렌체를 강타하자 이를 피해 남녀 10명이 시골로 피난 가서 10일 동안 하루에 각자 한 가지씩 풀어놓은 100개의 이야기를 묶은 책이 바로 『데카메론』이다. 자가격리 중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함인지 이야기는 지나칠 정도로 자극적이어서 오랫동안 금서로 지정되는 운명을 맞게 된다. 흑사병의 영향력은 미술에서도 엄청났는데 무엇보다도 미술의 사회적 존재 방식 자체를 바꿔놓았다고 할 수 있다. 엄청난 죽음 앞에서 당시 유럽인들은 『데카메론』처럼 도피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려 했고, 나아가 자신의 행적을 그림으로 남기려 했다. 이 때문에 미술은 일종에 호황기를 맞보게 된다.

팬데믹이 써내려간  
예술의 역설

사실 흑사병을 이야기할 때 역사적으로 '르네상스'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흑사병은 결과적으로 유럽인을 엄격한 종교적인 삶에서 벗어나 개성과 이성의 세계에 한 발 더 다가가게 했기 때문이다. 가공할 전염력을 가진 흑사병은 가까운 친지들과 동료들의 관계를 재정립하게 했다. 검게 타들어가며 죽음을 맞이하는 흑사병 환자에게 병자성사를 집행할 신부는 많지 않았다. 어쩌면 흑사병이 가져온 엄청난 죽음을 냉정하게 목격한 유럽인이 다시 역사를 써내려간 결과가 바로 르네상스라고 할 수 있다.

흑사병은 르네상스라는 역사적 반전을 이뤄냈지만, 스페인 독감은 이와는 다른 역사적 결말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1918년 봄부터 1920년까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까지 전 세계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걸렸고 최대 5,000만 명이 이 독감으로 사망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당시 일제의 무책임한 대처로 14만 명 가까이 이 독감으로 사망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스페인 독감은 이렇게 20세기 전반에 가공할 상처를 인류에게 남겼지만, 문학과 예술에서는 그 영향력을 독자적으로 보기보다는 시기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과 묶이면서 '다다'와 '초현실주의'의 세계로 이어진다. 현대 문화예술운동에서 다다와 초현실주의의 세계를 어느 누구도 가볍게 다룰 수는 없을 것이지만, 현실을 떠나 꿈과 판타지 세계를 추구했던 이 문예운동 후에 펼쳐지는 역사는 제2차 세계대전이다. 제1차 세계대전과 스페인 독감의 교훈을 냉철히 읽어내지 못한 덕분일까, 곧이어 벌어진 제2차 세계대전은 직전의 재앙보다 훨씬 더 많은 사상자를 낸 역사적 대재앙으로 기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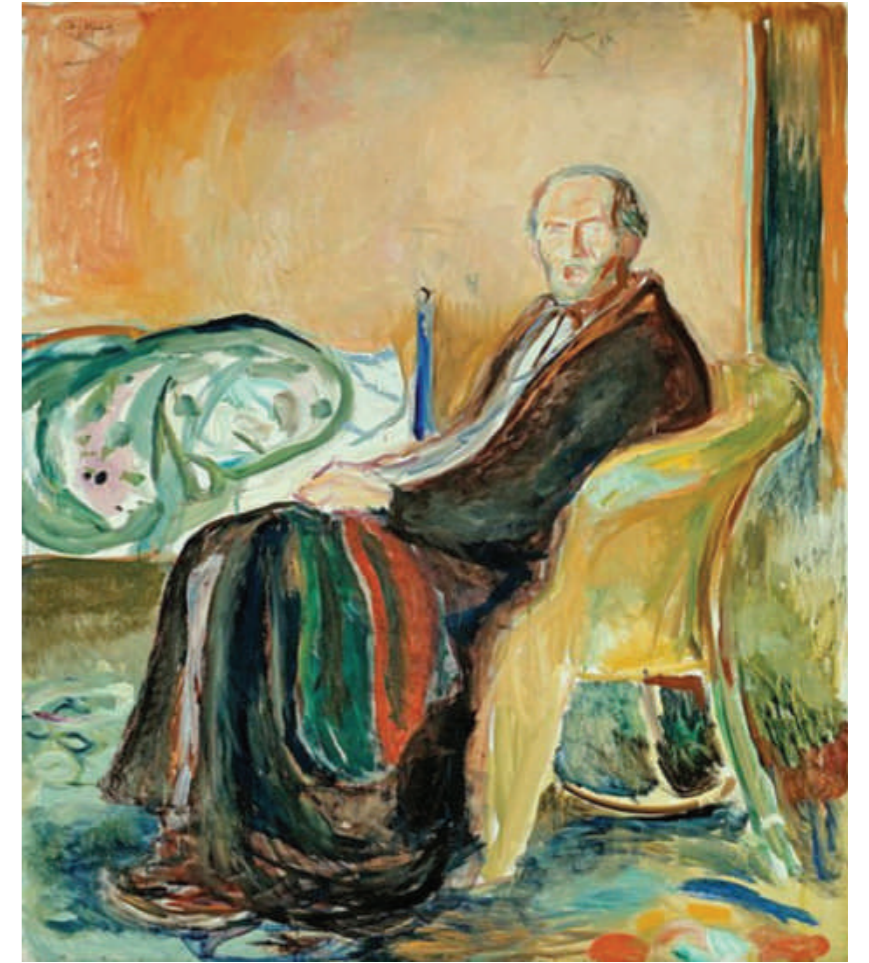
안드레아 오르카나, <스트로치 제대화>,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 피렌체, 1357

흑사병 직후에 제작된 이 제대화는 대역병의 공포 때문인지 엄격하고 단조로운 양식을 보여준다. 흑사병은 결과적으로 르네상스 문예운동으로 이어진다.



에드바르트 뭉크, <스페인 독감에 걸린 자신의 모습>, 국립미술관, 노르웨이, 1919

어렸을 때부터 병약했던 뭉크는 스페인 독감에 걸렸으나 이겨내고 이후에도 꾸준히 작업에 몰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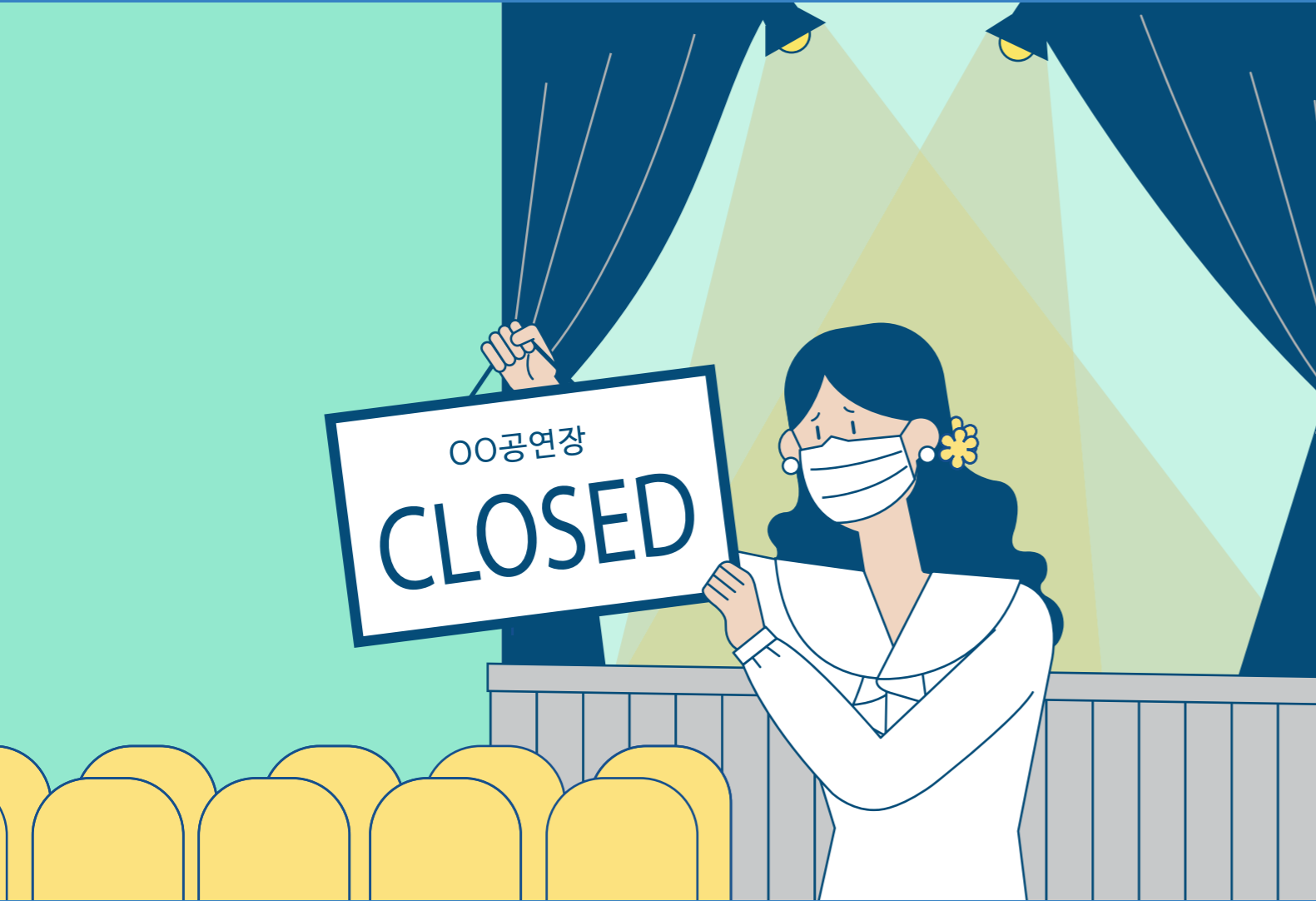
역사적으로 흑사병은 르네상스로 이어진 반면, 스페인 독감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이 두 갈림길을 우리 미래에 투영시킨다면 우리에게는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장밋빛 세계의 가능성도 있고, 지금보다 더 파괴적인 세계전쟁의 길로도 이어져 있다고 본다. 이 극단적인 좌표 속에 어떤 길로 들어서게 될지에 대해 많은 고민과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우리는 또다시 역사적 기로에 놓여 있다. ▲

양정무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이론과 교수다. 19대 한국미술사교육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미술사를 우리 사회에 알리는 데 관심이 많다. 도서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 1-6권, 『시간이 정지된 박물관 피렌체』, 『상인과 미술』, 『그림값의 비밀』을 펴냈으며, 『신미술사학』, 『그리스 미술』 등을 번역했다.

# ‘코로나19’로 ‘예술계 119’가 필요하다

2020년 시작과 함께 ‘코로나19’로 국내외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 어려움에 맞닥뜨린 우리의 문화예술계. 대안조차 마련할 수 없고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구호가 필요한 ‘예술계 119’가 돼버린 현시점에서, 힘겨운 상황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 3인 (대구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 강두용 센터장, 유정민 극작가이자 배우, 윤민식 뮤지컬제작자)의 생생한 이야기를 어렵게 담아보았다.



# 감염병으로 고용불안과 생계를 위협받는 예술인들에게 긴급 구제방안을

유정민 극작가·배우



지난 1월 31일 대학로에서 ‘스페셜 딜리버리’라는 공연을 시작했었다. 6년 전부터 만들고 고치고 다시 만들면서 올해 본 공연을 올리게 된 작품이라 관객과 만나는 이때를 무척 설레며 시작했는데, 사상 초유의 전염력을 가진 코로나19 때문에 현재 ‘잠시 멈춤’ 상태다. 직접 쓰고 출연하는 작품에 좀 더 많은 관객을 만나 교감하고 평가받고 발전시키고 싶었는데, 관객을 모으기도 힘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안타까울 따름이다.  
동료 예술인들 상황도 마찬가지다. 간혹 만나는 스태프들도 공연이 밀려서(무기한 연기) 실업자가 되었다 하고, 그나마 연초에 일했던 것도 수고료를 받지 못하거나 삭감된 경우도 있었다. 연습 중이던 작품들도 일정이 연기되어 현재는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계약을 앞둔 분들은 계약 일정도 밀려서 취소될까봐 걱정하고, 메르스 때 받은 대출금을 이제야 갚았는데 코로나19를 만나 또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분들도

있었다. 배우들 SNS를 통해 일용직도 구하기 힘들다며 일자리 부탁뿐만 아니라 480원이 찍힌 잔고 통장을 찍어 올린 단역배우도 있었다.  
사스 때는 큰 영향 없이 지나갔고 메르스 때는 국립극단 공연에 출연 중이었는데, 일정 취소 없이 공연을 했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선언된 상황이라 막막할 뿐이다. 만성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예술인들은 재난이나 사회적 위기를 만났을 때, 특히 사람이든 동물이든 감염병이 유행할 때는 풍전등화처럼 생계의 위태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고용보험은 기대도 못 하는 예술인들을 위해 이런 상황에 대비한 예술인 보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코로나19’처럼 예측이 어려운 신종 유행병이 생겼을 때 기본 소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예술을 포기하는 예술가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긴급한 구제방안들이 나오기를 희망해본다. ▲

**유정민**  
중앙대 연극학과를 졸업했으며 극단 아리랑과 오징어의 단원, 국립극단 시즌(1기) 단원이었다. 2002년 데뷔 이래 현재까지 연극, 뮤지컬,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며 연극 <스페셜 딜리버리>, <삼양동화>, <오늘 하루>, <경성 만성진> 등을 집필했다.

## ‘코로나19’와 관련해 향후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현실적 중론

윤민식 뮤지컬드라마 <당신만이> 제작자



2012년부터 올해로 8년째 오픈런(Open run)으로 진행되던 뮤지컬드라마 <당신만이>가 ‘코로나19’로 지난 2월 초부터 공연이 중단되었다. 아직 언제 재개할지 계획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픈런 공연이라면 하루도 안 쉬고 지금까지 공연을 지속해왔다는 것. 어려운 우리네 공연 현실 속에서 자부심을 갖고 이끌어왔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라는 것으로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제작자로서 공연 중단 후 가장 큰 걱정은 아무래도 금전 문제다. 오픈런 공연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연 중단은 결국 매출이 없다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연간 계약되어 있는 공연장의 대관료가 가장 부담스러운 현실이며 그 외에 사무실 직원들의 급여 또한 마찬가지다.

메르스 때도 같은 공연을 오픈런으로 진행했었는데 그때는 관객이 줄긴 했지만 한 회도 쉬지 않고 공연을 했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공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그 피해

가 더욱 크게 다가온다. 내 주변 제작자나 동료들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은 거 같다. 현재 공연계 전체가 ‘멈춘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연이 중단된 상황보다 더 공포감으로 다가오는 건 언제 재개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며칠 전 초·중·고 개학연기 발표와 정부에서 내세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모든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상황이라서 공연계는 코로나19 관련해 앞으로 더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중론이다. 오는 6월 예정이었던 지방공연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해외공연에 대한 논의도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 위험에 기약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별다른 대안조차 없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염원할 뿐이다. ▲

### 윤민식

강풀 순정만화 초연 프로젝트를 비롯해 난버벌 퍼포먼스 <점프> 국내사업을 총괄했다. 도모컴퍼니를 설립해 뮤지컬드라마 <당신만이>를 제작했으며 다수의 유명 작품들을 배급했다. 현재 한국공연관광협회 부회장이자 ㈜도모컴퍼니 대표다.

## ‘코로나19’로 직격탄 맞은 지역 예술인들에게 특별 지원책 필요

강두용 대구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 센터장



대구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예술가들의 피해 확인을 위해 긴급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예술인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과 공연업계 유지를 위한 자원 마련을 위해 대구시와도 긴밀히 협의 중이다. 또한 창작준비지원금 및 의료비 지원, 생활안정자금(옹자) 등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 중인 사업을 우리 지역 예술인에게 알리고 신청을 대행해주는 업무도 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예전 사스와 메르스, 여타 천재지변 같은 사회적 위기 때와 확연히 다른, 현실적 위기감을 예술인들에게 안겨주고 있다. 대구는 특히 대명동 공연거리의 공연장들을 비롯해 대부분의 극단이 심각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 어느 지역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터라, 대구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특별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 첫째, 대구지역 예술인들의 연습 공간 임대

료를 지원하는 정책이 실시되어야 하고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공연 또는 전시의 경우 상황이 안정되면 대관료의 경감과 함께 우선적으로 재대관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셋째, 절대다수가 프리랜서인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원천징수를 하는데, 가능하면 한시적으로 올 한 해 원천징수가 면제되었으면 하는 방안도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대구지역과 대구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에 대해 덧붙이고 싶다. 이번 사태로 대구 경제가 많이 위축되어 시민들이 생계유지에 많은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특정 종교집단으로 인해 사태가 악화된 배경을 두고 대구 시민들을 경계하는 시선이 가슴 아프다. 비난과 차별, 혐오의 말을 내뱉기 전에 나 또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회복을 기원하는 따뜻한 응원의 말 한마디가 우선되기를 기대해본다. ▲

### 강두용

수성아트피아 사업부장을 거쳐 대구콘서트하우스 기획팀장, 대구국제오페라오케스트라 부사장을 역임했다. 대구음악협회 이사이자 한국예술법학회 이사로 활동 중이며 현재 대구문화재단 본부장이자 예술인지원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예술인지원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 비욘드 코로나,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꿈꾸며

코로나19가 문화예술계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 당연하던 일상이 당연하지 않게 변했기 때문이다. 문화공간이 하나 둘 문을 닫자 예술인들은 모바일 생중계 공연을 하고, 사람들에게 예술로 희망과 응원을 전하고 있다.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코로나19라는 험난한 항해를 하는 중이다. 그 항해 끝에 찾을 각자만의 섬을 위해 오늘도 치열하게 살아가는 예술인을 만나보자.



#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더 좋은 방법이 계속해서 생겨나길 바랍니다

김지연 핸드스피크 소속 아티스트



작년 11월, 핸드스피크의 수어(手語)연극 <사라지는 사람들>이 쇼케이스를 선보였다. 놀라운 아이디어와 농인배우와 청인배우의 콜라보를 보여주며 극찬받았고, 핸드스피크는 본격적인 공연을 준비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올해 예정됐던 첫 공연이 취소됐다. 이는 팀원들에게 아쉬움이고 부담이었지만, 그만큼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 바로 세종문화회관이 세 달여간 진행하는 네이버TV 공연 생중계 <힘콘>의 무대에 서게 된 것이다.

갈등과 경계, 이해의 부재,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인간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내용의 수어연극 <사라지는 사람들>은 농인배우 7명과 청인배우 5명이 함께한다. 그중 한 명인 김지연 아티스트는 스트리밍방송의 장점을 먼저 언급했다. “공연장에서는 마지막 줄의 관객도 수어를 볼 수 있도록 관객석을 제한하는 반면 스트리밍방송은 많은 분이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장감이 중요한 수어연극에서 관객과 직접 교류할 수 없는 점이 아쉬움을 덧붙였다. “수어연극은 농인과 청인이 동시에 대사를 합니다. 이를 촬영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관객들이 놓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대체를 위한 변화일 뿐, 더 나은 방법을 위한 고민은 계속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 6월 3일은 청각장애인의 날이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로 김지연 아티스트에게 4월은 가장 바쁜 달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대부분의 공연이 취소된 올해는 다음 공연의 연습과 생계가 막막하다. “저뿐만 아니라 주위 예술인들 모두 생계를 유지하던 공연, 연습, 워크샵 등이 취소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김지연 아티스트는 앞으로의 돌파구를 찾을 예정이다. 새로운 형식의 온라인 콘텐츠로 예술을 전하고, 수어뮤지컬 뮤직비디오도 찍을 계획이라고. “<사라지는 사람들> 첫 공연이 무관중, 라이브 방송이라 어색하고 예측하기 어려웠지만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배우들이 말하고자 하는 수어가 관객들에게 잘 전달된 것 같고요.” 첫 생중계를 무사히 마친 김지연 아티스트는 코로나19로 예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와 사회가 침체된 지금에 많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하루빨리 회복되어 많은 관객이 수어연극만의 현장감을 만날 수 있길 바란다. ▲

### 김지연

핸드스피크 소속 아티스트로 수어연극 <사라지는 사람들> 출연, 조연출을 경험했다. 수어래퍼로 이름을 알리며 작년에 연출한 수어뮤지컬 <미세먼지>는 GKL과 함께하는 <제14회 나눔연극제>에 연출상과 대상을 수상했다. 공연으로는 2019 프랑스 <Festiva Clin d’Oeil>, 2017 홍콩 <능력자들의 무대> 한국 대표 등이 있다.

## 예술가의 삶을 들여다보며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현장 친화적 시스템 필요합니다

### 정유란 문화아이콘 대표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공연 중단 여파로 문을 닫는 공연장이 늘고 있다. 2003년, 대학로에 개관한 이후 뮤지컬 〈구름빵〉과 〈사랑은 비를 타고〉 등을 공연하며 사랑받아 온 예술극장 '나무와 물'도 그중 하나다. 문화아이콘 정유란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2월부터 멈춘 공연장에 매달 내야 하는 월세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폐관의 이유를 설명했다. 4월 20일, 해당 글이 업로드된 이후 만난 정유란 대표는 "많은 분이 공감해 주시고 함께 슬퍼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제일 먼저 전했다.

코로나19로 공연은 물론 예술인의 생계를 책임지던 아르바이트도 멈춘 상황이다. 하반기로 미뤄진 공연도 불안정하다. 공연이 중단된 이후 정유란 대표는 출연진과 스태프에게 재난지원금 수급을 위한 증빙자료를 발급하느라 바쁜 날을 보냈다고. 그전에도 대부분의 예술인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활동을 이어갔지만, 코로나19가 불을 지폈다. "작품활동만을 하며 생활하긴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요. 그럼에도 높은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로 작업해왔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이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와 거리가 멀다는 인식이 사회에 퍼져 있음 마주할 때, 예술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은 그저 삶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해온 문화예술의 숨이 끊어지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2000년 공연기획사 문화아이콘을 설립하고 20년 동안 대학로를 지킨 정유란 대표는 문화예술계의 재난 상황을 통제하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국민의 보건을 책임지는 질병관리본부처럼 실태 파악을 통해 인공호흡이 필요한 영역들에 빠르게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매뉴얼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재해에 대비해 예술인과 예술단체에 특화된 보험의 절실함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현재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공연자보험은 필수 의무가 아닐뿐더러 한도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예술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구체적 마련에도 목소리를 냈다. "예술단체는 고용이 발생하고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 불안정한 제작 환경에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된다면 외부 요인으로 받은 피해를 줄이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정든 극장을 정리하느라 바쁜 열흘을 보낸 정유란 대표는 현재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현재의 위기를 버티고 극복하고 있을 뿐. 그럼에도 그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다. "지금과 같은 어려움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

**정유란**  
2000년에 문화아이콘을 설립해 연극, 음악, 뮤지컬 등의 다양한 작품과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왔다. 공연기획, 제작, 홍보와 더불어 교육사업과 컨설팅까지 아우르는 문화아이콘의 주요작품으로는 〈구름빵〉, 〈표절의 왕〉,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도둑맞은 책〉, 〈위대한 개츠비〉 등이 있다.

##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이 예술입니다

### 블랑누아 앙상블, 김찬년 영화감독



골목을 누비며 흰 연기를 퍼트리던 방역차에 추억을 떠올리는 이가 많은 것이다. 피아니스트 그룹 블랑누아와 김찬년 감독도 그렇다. 하얀 연기와 매콤한 냄새를 장난스레 쏘던 아이들이 음악이라는 방역차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이들은 예술인으로서 스스로 역할을 찾고자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해당 프로젝트를 기획한 김찬년 감독은 "안방에서는 그저 작은 선율이더라도 창밖을 통해 보이는 피아노 한 대의 모습이 시네마틱한 순간이길 바랐다"며 처음을 회상했다. 이들은 공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기에 소리를 증폭시킬 장치는 일제히 배제하며 최대한 정중하게 청중들에게 다가갔다.

해당 프로젝트는 4월 2일, 3일, 10일, 세 차례에 걸쳐 총 8시간의 공연으로 진행됐다. 첫 공연 당시 블랑누아 앙상블은 걱정이 앞섰다. "소리가 들리지는 할지, 소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떡하지와 같은 걱정이 꼬리를 물었어요." 그러나 걱정도 잠시 창문 곳곳에 고개를 내미는 이들이 늘어났다. 트럭이라는 새로운 무대의 불안감이 기쁨과 보람으로 바뀐 순간이었다. "마치 거대한 홀에서 느낄 법한 박수가 높은 하늘에서부터 울려 퍼졌어요. 힘을 드리고자 시작했던 공연에서 저희가 더 큰 위로를 받았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김찬년 감독의 영화적 상상과 블랑누아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다. 예술이 이들을 이어줬듯 이 프로젝트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싶었다고. "피아노 연주로 아파트라는 각자의 공간에서 창문을 열게 됐으니까요. 위, 아래, 건너편 주민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격려하며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연대감을 얻었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박주량, 서승아, 송정화, 최영은은 블랑누아로 활동하며 음악교육과 학원 운영 등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멈춘 상태. 예정된 공연도 무기한 연기되며 그들 주위엔 생활고의 문제 외에도 당장의 목표를 잃은 상실감에 빠진 친구들도 있다. 김찬년 감독도 학생들의 교내 및 각종 영화제가 모두 연기되면서 열심히 만든 영화를 선보일 기회를 잃은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지금처럼 전혀 없는 전 지구적 위기상황에서 예술인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술의 영역이 인간사에 필수라는 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시대가 오는 상황 속, 정서적·문화적인 부분에서 예술인의 역할과 그것을 실현할 방법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블랑누아와 김찬년 영화감독은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연주회를 구상 중이다. ▲

**블랑누아**  
대학 동기인 박주량, 서승아, 송정화, 최영은으로 구성된 피아니스트 그룹이다. 2018년부터 다양한 장르로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 2018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마리아칼라스를 초청연주 The Second Stage〉, 〈The Encore Stage〉 등에서 공연했다.

**김찬년**  
영화영상학과를 졸업해 영화를 연출하고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단편 〈24개월 후〉, 〈PAN-DORA〉 등을 제작했다. 제12회 미장센 단편영화제 최극지방, 대한민국 세계청소년영화제 수상 외에도 여러 국제단편영화제 등에 출품했다.

# ‘코로나19’의 오늘과 이후의 과제

홍경한 미술평론가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재난을 통해 하나의 운명공동체라는 사실을 체감했다. 시민들은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의식을 보여주었고, 폭증한 환자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떠나지 않은 의료진의 값진 희생은 세계적 귀감이 됨은 물론, 극도의 공포감 속에서도 우리 사회가 안정을 지킬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 하지만 현실이 녹록한 건 아니었다. 감염병 예방수칙을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로 혹시 모를 확산을 막는데 동참함으로써 최악의 고난을 최소화했지만, 공공생활이 정체되면서 국민 모두 민생위기와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야 했다. 그야말로 가혹한 봄이다.

### 홍경한

미술평론가이자 전시기획자, 칼럼니스트이다. 월간 <미술세계>와 <퍼블릭아트>, <경향아티클> 편집장을 거쳐 2018 강원국제비엔날레 예술총감독, 서울시립미술관 기획전 예술감독, 대림미술관 사외이사,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경향신문>과 <메트로신문> 고정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서에는 『공공미술, 도시를 그린다』를 비롯해 다수가 있다.

### 문화예술계 피해액 523억 원, 예술인 10명 중 9명 수입 감소

문화예술계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예술계 내 거의 모든 공간이 문을 닫았고, 행사들 또한 줄줄이 취소 및 연기되었다. 대부분의 예술 장르가 초토화되자 예술인들의 일거리도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중에서도 약 80%에 달하는 프리랜서 예술인들의 피해가 컸다. 어떤 이는 그저 속절없이 버티는 것 외에 도리가 없었으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지인에게 빚을 냈다.

이런 상황은 통계에서도 드러났다. 3월 18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코로나19 사태가 예술계 미치는 영향과 과제』에 따르면 1월~4월 동안 취소 또는 연기된 국내 공연과 전시는 2,500여 건이 넘었다. 문화예술계의 직접적인 피해액만 523억 원에 달했고, 예술인 10명 중 9명의 수입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선별적이고 실효성 떨어지는 단체 중심의 취약한 지원책들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예술인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다. 소규모 공연장을 중심으로 방역용품 지원했으며, 지난 2월 20일 진행된 간담회에선 예술인 지원과 단체들에 대한 피해보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3월 18일엔 추가 대책으로 공연관람료 할인권 제공, 소극장과 공연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예술인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온 한국예술인복지재단도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인 ‘예술활동증명’ 및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디딤돌(코로나19 피해예술인 가정)’,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코로나19 특별융자)’ 등을 맡아 경제적 취약계층인 예술인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일련의 지원책들은 대개 선별적이거나 실효성이 떨어졌고 단체 중심의 지원에 그쳤다. 규모도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었다. 일례로 방역용품 지원은 300석 미만의 공연장 외, 여타 타 장르 민간 예술 공간은 제외되어 보편적 지원과는 거리가 멀었다. 또한 공연과 전시를 열 수가 없어 당장이 시급한 상황에선 관람료 할인이나 기획비 지원은 꽤나 한가한 얘기였다. 특히 긴급 편성한 30억 원의 예술인 특별융자는 예산 제한이 있는데다 한국예총 추산 예술인 약 130만 명의 1/20 수준에 머무는 예술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구조여서 대부분의 예술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그마저도 갚아야 할 ‘빚’이라는 점에서 기대했던 재난생계소득 차원에서 의 일괄보조금과는 차이가 있었다.

### 예술인들을 위한 전문성 있는 케어에 대한 지침의 부재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정책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예술인들을 실망케 한 건 2003년 창결한 사스를 비롯해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사태 등의 전례가 있었음에도 정부는 납득할 만한 매뉴얼 없이 ‘처음부터 다시’와 닮은꼴 양태를 내보였다는 사실이다. 피해 규모를 가능할 수 있는 기본데이터인 ‘예술인피해 전수조사’조차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고, 그동안 겪은 전염병에 관한 경험과 사례를 토대로 한 중장기 대책부터 내놓은 후 수정·보완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거쳐야 했으나, 아쉽게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그저 급한 불 끄기에 급급했을 뿐, 전문성 있는 케어에 대한 지침은 없었다.

문체부는 소통도 부족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며 박양우 장관까지 나섰지만 국내 전파가 시작된 지 이미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다. 지난해 12월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첫 발생한 지 두 달여가 지난 다음에야 본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했다. 그러니 발 빠른 장르별 맞춤형 지원은 생각하기 어려웠다.

예산마련을 비롯해 여러 난제가 있었겠으나 문체부의 구체적 재난 솔루션이 누락된 행보는 ‘당면할 때는 이미 늦다’는 교훈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무엇을 준비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그리고 그 과제 중에는 2018년 발의되어 현재까지 국회 계류 중인 ‘예술인고용보험법’과 ‘통합대응 시스템 구축’, 사회적 재난을 대비한 ‘예술인 긴급예산’의 상시편성 등이 있다.

###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 재검토 및 재난 대응 시스템 강화

우선 예술인들의 ‘예술인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와 같은 예술인들의 기초적 수준의 경제적 안전망까지 포괄하므로 지금과 같은 재난에서도 실직 위험에 따른 소득보전과 실업급여 수급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경쟁적 구조 아래 일회적이고 제한적인 공모제를 통한 지원에서 벗어나 보다 보편적·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데다, 예술생태계의 근본적 취약성 개선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제도이다.

또 하나의 과제인 ‘통합 대응 시스템 구축’은 재난·재해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술분야 실무에 있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현장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결국 문화예술인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 재난 대비 ‘예술인 긴급예산’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심도 있는 대책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의 당위성이 있다.

이 밖에도 공공재를 창출하는 예술인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꾸준한 노력, 비접촉 예술 감상 및 판매·관람 등이 가능한 통합 플랫폼 개발, 현재 6개월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의 상시 운영을 통한 예술가일자리 창출의 연속성 등의 해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재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채 희망을 담보하는 밝고 건강한 예술생태계 조성을 원한다면 충분히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다. ▲

# 코로나19와 지역의 문화예술

김필국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월, 필자가 속한 강원문화재단은 <2020대관 령겨울음악제(2.9.~25.)>의 개최 여부에 대한 논의가 내부적으로 있었지만, 공연은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공연장에 손 소독제, 마스크 착용, 열 감지 카메라 설치, 객석 띄어 앉기 등의 기본적인 안전망을 마련하고 행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었다. 매일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와 확산 여부를 체크하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진행하던 중 <동서남북 콘서트>와 <겨울나그네> 공연을 취소하는 아픔을 겪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 환경 변화에 대한 대비를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공감기가 있었다. 2월 중순부터 대구와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대부분의 공공 공연장과 전시관, 박물관이 폐쇄될 무렵 문화포털 사이트에 강원도가 공연과 전시 등의 활동이 전혀 없는 지역으로 검색되어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이 시점에서 강원문화재단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우리 재단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막연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강원지역 예술인들이 느끼는 현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은 어느 정도일까?', '또 그들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생각은 많고 현실은 막연했다.

**김필국**  
2019년부터 강원문화재단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이전에는 극단 아리랑 기획실장을 시작으로 전민족극운동협회 사무국장, 국립극장 공연운영과 기획위원, 서울문화재단 경영기획실장 등을 재임했다.

## 지금, 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에 주목하며

서울문화재단에 재직하던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의 추가 재원을 통한 예술 분야의 지원을 담당했던 터라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재단 직원들과 강원도청의 문화예술과와 긴밀하게 협의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들을 모색하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WHO에서 세계적인 대유행을 선언한 날이 3월 11일이었지만 나름 강원도는 2월 말부터 전 직원에게 아이디어를 구하고 3월 5일과 6일 강원도와의 연속 회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우선적으로 강원도 예술가들이 필요로 하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비예산사업과 예산사업을 분류하여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시작할 사업을 문화사업본부 중심으로 추진하였다.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강원지역 문화예술인 322명이 참여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실태 조사 결과는 참담함 그 자체였다. 2020년도 1월부터 3월까지의 소득현황은 '전혀없음'이 195명(60.5%)에 달했고, 지역예술인들의 주요 소득원으로는 창작 및 실연을 통한 작품료 및 출연료 79명(24.5%), 예술교육을 통한 강사로 164명(50.9%), 문화예술 관련 기관 공모 지원금 21명(6.5%) 등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대면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술 활동 자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고,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면 '예술가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가장 필요한 지원방안은 '생활안정자금'으로 305명(94.7%)이 답했다.

이에 강원문화재단은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 따른 추가 재원 확보의 여부, 새로운 추가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 부족과 직원들의 피로감, 적시 적소에 꼭 필요로 하는 사업안 마련 등이 넘어야 할 난제였다. 하지만 우리는 몇 가지 원칙을 마련하여 언제 끝날지 모를 숙제를 하고 있다.

## 지속가능한 예술의 시대를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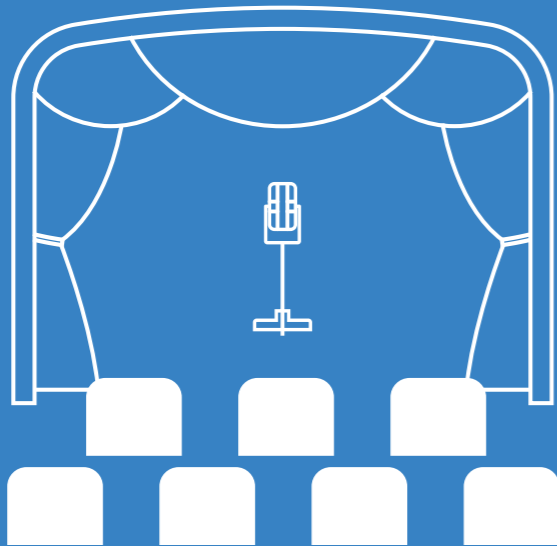
강원도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역예술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위해 중앙정부 문화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지원사업 대상 인원 확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찾아가는 교육·컨설팅', 한국메세나협회의 메세나 기금 유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한 예로 강원지역 예술가의 예술활동증명을 통한 '창작지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추진한 '찾아가는 예술활동증명 등록 지원 서비스' 결과, 235명의 지역예술인이 등록하였고 아울러 예술가를 고용한 전담 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예술활동증명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다.

개인 셀카를 통해 강원예술인을 소개하는 강원지역 예술인 홍보플랫폼 '예술가 감자C', 자발적 고립과 선택적 연대를 가치로 한 '강원 작가의 방',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사업인 '돔-드림(Doum-Dream)', 10월에 개최될 <강원키즈트리엔날레2020>에 앞서 추진한 '강·키·트와 놀자! 집콕 미술놀이 영상 공모전', 홍보영상제작 지원사업인 '힘내라 강원영상인', 강원도 영상 초년생 및 영상활동가와 함께 강원도 촬영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강원찾기 프로젝트', 기선정된 전문예술 지원사업과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선교부와 인건비 선지급 등은 설문조사 결과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나온 사업들이다. 임시 사업인 경우라도 있지만 일부 사업들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예술계의 지속가능한 정책과 사업 모델이 필요하다는 충격파를 던져준 점도 있다고 본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현재 강원도와 강원도의회가 추진 중인 지역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예술인의 복지 지원을 위한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일 것이다. 강원문화재단에서도 조례 제정에 따라 지역예술인을 위한 예술인복지 전담부서를 만들어 강원지역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탬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소멸되고 예술인들의 무한한 상상력과 인고의 창작력이 발휘되는 예술가의 시대가 도래하길 기대해 본다. ▲

# 코로나19 사태로 고통 겪는 공연계를 살펴보다

김용제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회장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힘들지만 문화예술계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다. 공연은 취소되어 무대의 조명은 꺼지고 관객의 발길도 끊겼다.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져 현실은 감염병으로 초토화되고 있다. 그래도 희망을 얘기해야 내일을 기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김용제 회장이 전하는 메시지가 엄혹한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낼 수 있는 희망 백신이 될 수 있기를...

### 김용제

동국대 경제학과와 고려대 언론대학원을 졸업했다. '난타 공연' 총괄 운영 책임을 거쳐 다수의 뮤지컬을 기획·제작했으며 지난해에는 웰컴 대학로(공연관광페스티벌) 총감독으로 활동했다. 현재 중부대학교 공연예술학부 겸임교수이자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 사라진 일상을 견뎌내며

쉽 없는 외세의 침략과 그로 인해 생존의 위협에 시달렸던 우리의 선조들이, 서로에게 아침마다 묻던 인사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였다. 지금을 사는 우리들이 이 말을 들어본 적은 있어도 흔하게 나누지는 않는 인사말이다. 하지만 요 며칠 자고 일어나면 지인들에게 이렇게 안부를 묻는 일이 생겼다. 지난 밤사이 별고 없으셨는지, 안녕은 하셨는지... 일상이 사라졌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절박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장기화가 시작된 코로나 19 사태는 어느 위치에서 바라보더라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내가 몸 담고 있는 공연계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본다면 우선순위에 한참 밀려나 있는 분야다. 아무리 감동적으로 만든 공연 한 편의 감상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절박한 마스크 한 장보다 가치 있게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이라 생각한다.

### 다음에 불확실한 공연계 그리고 배우들

공연 한 편이 만들어져 무대에 올려지는 건 수없이 많은 분야의 인적·물적 자원이 동원되는 과정이다. 공연을 만드는 제작사나 공연을 올리는 공연장이나 보건당국의 지침대로 소독과 체온검사, 마스크 착용 등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급한 지금 시점에 얼마나 유효한 조치가 될지는 알 수가 없다. 예배나 집회 같은 공식적인 모임들도 자제해야 하는 시점에 밀폐된 공간(공연장)으로 관객들을 모신다는 건 국가방침에도 맞지 않는 행위다. 이렇다 보니 거의 모든 제작사나 기획사, 공연장들이 개점 휴업상태다.

한 편의 공연을 만들기 위해 최소 6개월에서 1년여를 준비해온 공연들을 중단하면서도 약속된 제작비는 지출해야 하고, 언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다음을 준비할 수는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부분이 영세한 제작사나 기획사는 도산을 코앞에 두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대형 제작사라고 해서 사정이 크게 다른 것도 아니다. 대중적으로 크게 성공했다고 생각되는 제작사들도 매번 작품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에 준비한 하나의 작품이 크게 흔들리면 기획사의 존립을 걱정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관객들을 가장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배우들의 사정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 다시 사랑과 희망을 노래하는 공연을 위해

막막한 상황이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희망의 실마리나 해결책을 찾는 작업은 지속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지금 처한 이 공포는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흐르면 시장은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에 강원도 인제군을 시작으로 고성군과 속초, 강릉, 동해 지역에 아주 큰 산불이 있었다. 1년이 채 안 되었는데도 강원도는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나고 있다.

원래부터 공연계는 아주 기초적인 지원부터 필요한 분야였다.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훌륭한 인적, 물적 자원이 대한민국에는 아주 풍부하다. 오히려 지금, 이 자원을 기초적인 부분부터 보듬고 키워주는 대책을 정부에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고사 위기에 처한 공연계의 모든 자원들이 숨을 쉬고,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부터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언젠가는 지금의 이 사태가 진정될 것이고, 사람들은 다시 사랑과 희망을 노래하는 공연을 찾아줄 것이고, 공연계는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관객들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

# 예술인 심리상담으로 극복하는 코로나 블루

조현섭 한국심리학회 이사장·회장, 총신대 교수



정상반응이라는 것이 있다.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회사에 입사면접을 보러 가면 너무 떨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사망하면 오랫동안 슬픔을 간직하고 우울하게 지내게 된다. 너무 부당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나서 속이 상한다. 이러한 반응은 이상한 게 아니다. 정상반응이다.

코로나19에 대한 반응도 마찬가지이다. 감염될까 어느 정도 불안해하며 걱정하고 조심하고 의욕이 떨어지는 것 등은 정상반응이다.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출이 제한되니 집 안에서 종일 식구들끼리 부딪치고 예민해져서 다소간의 갈등이 야기되는 것도, 답답해지는 것도 정상반응이다. 또 혼자 지내는 경우, 자신에게 더 집중하게 되어 있고 지냈던 나쁜 기억들이 떠올라 힘들다 급기야 어느 정도 우울해지는 것도 정상반응이다. 이렇듯 코로나19로 이런 저런 불편감이나 불안이 생기고 힘든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정상반응이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이 지나치게 많고, 불안해서 먹지도 못하고 공포감에 휩싸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면 정상반응이 아니다.

### 조현섭

현재 총신대학교 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이자 한국심리학회 이사장/회장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심리상담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국회 자살예방포럼·국무총리실 자살예방정책자문위원회·법무부 심리치료중앙자문위원회·보건복지부 생명존중정책자문위원회 등의 자문위원이다. 국가자격증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한국심리학회에서 수여한 임상심리전문가로 상담을 시작한 지 30년이 넘었다.

### 코로나19로 불안한 일상이 지속된다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는 이미 고통을 겪어 본 사람이다. 즉, 기존에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은 훨씬 심각하게 느낀다. 다른 경우는 본질적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이다. 즉 평소에도 사소한 스트레스에 쉽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이외에도 원래 성격적으로 예민하고 감정이 쉽게 변하는 사람일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동일 상황에 직면해도 다른 사람보다 쉽게 공포감을 느끼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관련하여 정상범위를 넘어 비정상적인 반응까지 경험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빨리 자격을 갖춘 심리상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불안과 공포감이 더 커지게 된다. 혼자 있는 경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고 더 무서운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 우울감이 가중될 수 있다. 이럴 경우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그리고 제한된 공간 안에서 시간을 효과적으로 보내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들을 떠올려 지금 누구나 나 정도의 불안이나 공포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동안 바빠서 돌아보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하며 오랜만에 여유를 누리자는 생각으로 '쉽'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외에도 평소시의 일상적인 생활리듬을 잘 유지하고 국가에서 안내하는 코로나19에 대한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국가의 방역 및 의료수준을 신뢰하고 자신도 이러한 상황을 잘 극복해 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 예술인의 마음건강을 위하여

다행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한국임상심리학회와 MOU를 체결하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심리상담자격증 1급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국가자격증), 혹은 한국심리학회에서 수여한 심리상담 1급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운영하는 전국 37개 센터(2020년 4월 기준)에서 예술인들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심리상담 관련하여 국가자격증이나 한국심리학회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은 심리상담과 관련한 석사가 된 이후, 최소한 3~4년의 심리상담을 위한 훈련과정을 거쳐 자격을 취득한 자로 박사거나 박사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5,000개 이상의 심리상담 민간자격증이 있는데, 대부분 턱없이 부족한 조건을 갖춘 경우가 많다. 즉, 온라인 강의로 3일 만에 따거나 동사무소 등에서 진행되는 일정 시간의 소정과정을 이수한 후에 자격증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심리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상담자의 심리상담 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필자는 심리상담 센터를 설치·평가·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중에서 단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 시스템이나 운영방법 및 심리상담사의 자격 등은 최고다.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리상담 시스템은 예술인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개인상담 뿐만 아니라 집단상담, 찾아가는 심리상담을 진행하며 숲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자신을 알기 위한 지피지기, 명상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병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예술인들의 심리적인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한국처럼 예술인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나라는 없다. 따라서 혹시 예술인 중에 심리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리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자신 있게 권유해 본다.

### 예술인의 심리적 어려움을 함께 나눕니다

해마다 많은 예술인이 불안이나 공황장애·우울증 등의 정신건강, 대인관계, 경제적인 문제, 진로 및 불안정한 일자리, 자기 이해 및 성장을 위한 내용 등으로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데, 해가 갈수록 심리상담에 만족도가 높아서 매년 예술인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가득이나 평소에도 정신적·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데,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이 가중되고 일자리를 잃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예술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의연하게 지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긴 어느 정도의 불안과 공포감, 불편감은 누구나 경험하고 있는 정상반응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그래도 만약,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심리상담(02-3668-0264)을 신청하거나 한국심리학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상담을 신청해 보자. 070-5067-2619(2819, 5719)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 여러분의 큰 박수가

## 필요합니다



지구가 등근 이유를 아세요?

아무도 구석에서 혼자 울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답답하기만 한 코로나19 시대에도

여전히 지구는 등굽니다.

그 등근 지구 위에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문화라는 '땃줄'로 연결된  
예술인들을 응원해주세요.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이지만,  
강한 위로의 힘을 가진 예술과 예술인들에게  
팅커벨을 살린 어린이들의 박수소리같은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의 삶은 이어져야하듯이  
동시대의 예술은 계속 창작되어야 합니다!

# 음악생태계 당사자들의 ‘선(善)한 목소리’

이신태정씨 뮤지션유니온(MU) 3기 위원장



노래를 만들고 곡을 발표해온 지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다. 만든 노래가 처음으로 녹음되고 음반으로 만들어져 사람들에게 알려진 게 1998년 봄이었으니 22년 전의 일이다. 대학의 수업보다 노래동아리 활동이 재밌었고 보람 있었다. 필자는 학생운동에 참여하며 사회운동의 한 영역이었던 ‘노래운동’으로 진로를 모색했지만 처음부터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일이 직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내게서 시작된 노래가 알려지고 누군가에게 새로운 의미로 간직되는 게 신기했을 뿐이었다.

필자가 ‘뮤지션’이라는 직업을 내세우고 막상 살아보니 이 사회는 뮤지션들을 비롯한 예술가들에게 너무나 척박하기만 했다. 일반적으로 뮤지션들의 수입은 예측이 어려울 뿐 아니라 극소수를 제외하고 음악 활동을 통한 수입이 거의 없어 음악 작업을 지속하기 힘들었다. 특히 디지털 음악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음반 시장이 몰락했고, 인디뮤지션 대다수가 다른 직업과 병행으로 생존을 모색했다. 필자도 안정적이지 못한 공연수입의 대책으로 강습이라는 생존조건을 만들었다. 지인들을 통해 학교, 사회에서 문화예술강사 자리를 소개받아 강사비로 음악 활동을 지속할 조건을 만들어가야 했다.

**이신태정씨**  
‘이신태’이라는 예명으로 정규앨범 『이신태 1st』(2011), 『이신태 2nd 이어진시공간』(2015) 발매했다. 2016년부터 뮤지션유니온 운영위원으로, 2018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뮤지션유니온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 음반시장의 변화 속

### 인디뮤지션의 설자리

사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CD를 들고 다니면서 몇 장이라도 판매할 수 있었다. 음반제작비용이 적지 않지만 보따리 장사를 통해 음반을 판매하면 최소한의 필수 경비는 회수할 수 있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음원플랫폼이 모바일과 웹 공간에서 안착하면서 음반 시장은 팬덤을 구축한 아이돌의 굿즈(goods) 시장으로 바뀌었고 인디레이블들이 버티던 소규모 음반 시장은 몰락하였다. 이름 없는 뮤지션들은 음반을 판매할 수 없으니 제작한 CD를 쌓아둘 수 없어 명함처럼 나누어주고 있으며 음원플랫폼에 등록된 곡들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푼돈에 불과하다. 필자도 2005년에 제작한 음반은 제작비용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했다. 이후 팀이 해체되고 제작비용을 몇 년 동안 개인적으로 갚아야 했다. 2011년, 2015년 두 차례 제작한 정규음반의 제작비용 또한 음반 판매를 통해 충분히 메꾸지 못했다. 기존 인디뮤지션들의 음악이 유통되는 음악유통체계는 완전히 붕괴됐다. 디지털 음악유통체계의 지배자인 음원플랫폼은 유료가입자들의 월정액을 꼬박꼬박 받아 자본이윤으로 나누거나 직원들 월급을 주고 있다. 음원플랫폼은 ‘뮤지션’들의 지속가능한 음악 활동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 없고 음악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을 어떻게 나누어 더 많이 차지할지에 눈독 들인다. 소수 뮤지션의 대박에 가려진 웹 서버 귀퉁이 어딘가에서 이름 없는 뮤지션들은 수백 혹은 수천만 원을 들이고, 온 힘을 다해 만든 음악이 디지털신호로 호출되어 누군가의 귀에 들려지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 뮤지션유니온, 존재의 이유

무대가 고픈 많은 뮤지션들은 계약서 없이 구두로 섭외되어 불명확한 조건으로 공연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도 20년 동안 많은 공연을 해왔지만 계약서를 맺고 진행한 공연은 다섯 손가락에 꼽을 정도이다. 무료로 공연한 경우도 많지만 정당한 공연비를 요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행사 주최 측에서 상정한 예산 범위에서 결정된 소액의 공연비를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웠다. 유명하고 인기 있는 연예인이 아니라면 갑의 지위를 누릴 수 없다. 저작권 신탁, 음악저작물 거래, 공연 등의 모든 음악 활동에 대한 계약에서 보통의 뮤지션들은 허울뿐인 ‘갑’의 위치에서 계약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자신의 공연비조차 제대로 요구하지 못하고 자신을 불려주는 행사 주최 측의 일방적인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으며 그조차도 계약서 없이 구두로 대충 전달받아 활동하는 현실에 놓여있다. 뮤지션유니온(MU)에 가입해 2018년부터 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던 이유는 나를 포함해 많은 뮤지션들이 겪고 있는 불안정한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자본력을 갖춘 음악산업 자본에 철저히 길들여지는 기형적인 음악생태계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다. 많은 예술인이 긴 시간의 음악교육과 연습과정을 거쳐 ‘뮤지션’이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지만 그들의 노력은 배신당하고, 기형적인 음악생태계의 과실은 음악산업 자본이 차지한다. 그나마 나누어주는 음악저작권료, 실연권료 역시 소수 뮤지션들이 독식하는 구조여서 ‘음원 사재기’를 해서라도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실정이다. 이런 비이성적인 음악생태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으나 다들 음악산업 수직계열화의 카르텔과 예술시장의 기형적 유통구조에 편승하려 할 뿐 어느 누구도 ‘선(善)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 음악은 우리의 일입니다!

뮤지션유니온의 꿈은 뮤지션의 직업적 안정성을 사회적으로 보장받고, 당당한 음악으로 음악의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며, 음악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대우를 요구하는 사회적 교섭을 실현하는 것이다. 뮤지션유니온은 음악생태계의 당사자 조직답게 뮤지션들이 겪는 불공정 피해사태에 노동조합 뮤지션유니온의 이름으로 대응하거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뮤지션들이 음악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예술인권리보장 입법 청원, 예술인고용보험 도입 촉구, 프리랜서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요구 등 조금 더 나은 사회제도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사회단체 등과 협업해 조합원들이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대안공간에서의 공연을 조합원들과 직접 기획하기도 하는 등 음악 활동의 장(場)을 넓혀가고 있다. 뮤지션유니온은 2013년 창립, 2017년부터 노동조합으로 설립 신고를 하여 활동해왔다. 2020년 2월 9일, 정기총회에서 새롭게 4기 위원장을 선출하고 운영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노동조합으로서 “음악은 우리의 일입니다! Music is Work!”라고 뮤지션유니온으로 하나로 뭉쳐 목소리를 높여가다보면 ‘뮤지션’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겨운 음악생태계의 선(善)순환을 위해 기여를 하리라 생각한다. 뮤지션유니온이 음악생태계에 건강한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 많은 뮤지션이 참여할수록 선(善)한 목소리의 힘은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뮤지션들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고민과 성찰로 지혜를 모아 이슈를 만들어가고 제도를 변화시켜가며 함께 실천하면 좀 더 나은 음악생태계는 이루어질 것이다. ▲

# 결국, 문제는 법이다

-공생(예술 공공성과 예술인 생존권의 조화)을 위하여

나도원 대중음악평론가, 예술인소셜유니온 前위원장



“예술인도 노동자다!” 이 구호를 외쳤던 10년 전만 해도 ‘예술과 노동’이라는 조합이 낯설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되어 다행이다. 이렇게 강산은 변했지만 안타깝게도 예술인 현실은 거의 그대로다. 음악과 영화를 비롯하여 한국 문화산업의 성장으로 매출액과 수출액이 천문학적 수치로 커져 왔지만, 그 환경 아래서 일해온 예술 노동자들의 가슴 속 소리 없는 아우성 또한 커져 왔다.

상당수 문화예술계 종사자와 예술인들이 본업과 무관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에 대한 방증이다. 작가와 예술인, 노동자에게 불공정계약과 부당행위 그리고 열정 착취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각종 디자인처럼 예술로도, 노동으로도 정당하게 인정받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작업도 있다.

**나도원**  
대중음악평론가이자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 예술인소셜유니온 前공동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결국, 음악」과 「시공간을 출렁이는 목소리, 노래」가 있으며 공저로는 「한국 대중음악 명반 100」,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1,2」 등이 있다.

## 자본과 정치 속 문화예술계

대기업 자본이 문화예술계를 접수하고 있다. 대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획득한 다른 산업계와 마찬가지로 폐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사회공헌활동과 문화마케팅을 연계하여 기업선전과 상품광고 효과를 노리는 기법은 오래되었고, 중소기업 기준활동과 '조인'하거나 공헌시설 운영과 같은 역할을 시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은 자본 논리대로 수익이 작아지면 철수한다. 자금 부족과 편중이 시달려온 문화예술동네에 자본 유입은 당장 유용한 해법으로 보이겠지만 어느 분야건 대기업 자본으로 문제가 해결된 사례는 없다.

정치는 어떠할까. 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이 발표하는 문화예술정책공약은 한류산업·문화강국과 같은 시장 이데올로기를 반영해왔으며, 예술인을 위한 정책은 뒷전이거나 생략해버린다. 사업자 중심의 지원 계획과 향유자 대상의 정책 수립이 일반화되었다.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문화예술은 결과이고 창작·생산 환경 조성이 전제임에도 말이다. 결국 문화정책 들에는 공통점이 생겼다. 모두를 위한 정책을 만들려다 누구를 위한 정책도 아니게 되는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 예술인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문화산업계는 아직도 장르별로 존재하는 '나쁜 관습'이 만든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낙후된 문화산업의 제반 조건들이 완비되어야 예술노동의 여건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야말로 낙후된 것이다. 그럼에도 수년 전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병합심사 중에 “표준계약서 사용 강제는 자유로운 예술 활동 저해 및 사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비판적 소지가 있으며, 계약 당사자 간 다양한 계약 형태를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sup>1)</sup>는 의견을 무려 전문위원이 제기하는 현실이다. 신분과 처우 그리고 복지 문제의 해결을 통하

여 생산(자)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산업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노동직종별 세대화의 진행으로 생산직 등이 중년 이상의 노동자로 고착된 반면, 청년세대 중 상당수는 문화산업 등으로 진입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산업 내에도 내부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으며, 체계화되지 못한 전근대적 잔재들이 가득하다. 해법은 고용불안과 불명확한 노동관계 그리고 장시간 노동과 임금 체불의 일상화를 깨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 어디에서 많이 들어볼 말 아닌가? 비정규 불안정노동과 간접고용, 특수고용 문제의 관건들이다. 다시 말해 예술노동은 비정규불안정 노동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해결을 위해선 노동문제를 풀어야 하며 예술인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실마리가 나온다.

물론 예술인은 보다 특수한 상황에 있기도 하다. 한국적 상황 때문인지, 예술인 복지와 지원 그리고 투자를 뒤쫓는 경우가 많다. 혼동해선 안 된다. 복지는 모든 구성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안전망이지 봉사과 기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또 재원을 투입한 만큼 성과를 요구하는 투자 또한 복지와 구별되어야 한다. 여러 개정안을 심의하여 개정한 『예술인 복지법』 역시 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긴 했으나-재단설립과 운영에 관한 것에 집중되고-노동자 의제(예술 노동자로서의 권익)를 건너뛰어서 근본문제를 놓친 면이 있다.

구체적인 해법은 현실에 맞는 단서조항들을 기존 법체계 안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산재보험으로만 좁혀서 예를 들면, 건설일용노동자에게는 산업특성상 부분적인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면서 전면적인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고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보험모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특례가입이 가능하

다. 이러한 방식의 사회보장체계 포섭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이 역시 노동자성 인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 예술을 말하며 산업을, 예술을 말하며 노동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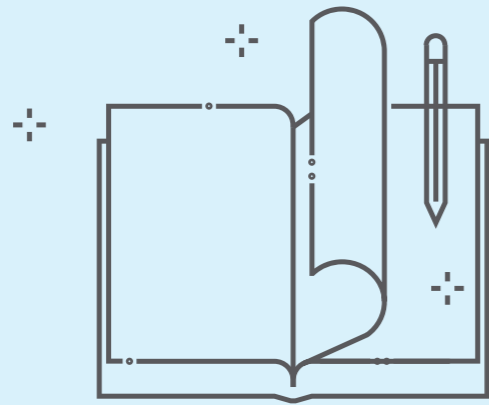
‘일하는 예술가’란 말은 여전히 생소할 수 있다. 그런데 일하지 않고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까? 에너지와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신통력의 소유자들이라도 있는가? 더구나 예술적 산물은 사회자산이다. 자신과 별이만을 위한 생산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는 물론, 자기 사후의 시대와 세대를 위한 생산에 몰두하는 이들이 누구인가? 그들에게 수혜 입지 않은 자가 있는가?

예술인, 문화산업 종사자에게 삶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산업의 안정 또한 가능하지 않다. 문화산업의 광범위한 후진성과 반노동성의 교정, 종사자들의 각성과 조직화가 시작되어야 한다. 특히 예술인복지체계의 확립과 노동자성의 강조를 통한 『예술인 복지법』의 개선은 ‘을(乙)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청년일자리 확충’ 그리고 ‘복지의 확대’라는 시대의 요구와 맥을 같이 한다. 고용이 최선·최종의 목표이며 훈련과 교육을 통하여 노동시장에 편입시키는 과정으로 복지를 사고하는 생산성 중심의 사회투자국가 개념보다는, 구조적 문제로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구성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제공이 국가의 책무라는 사회복지국가 개념을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이상이 예술을 말하며 산업을, 예술을 말하며 노동을 강조하는 이유이다. ▲

1)국회입법조사처 자료, 2013년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병합심사 관련 녹취록 참조

#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적용법〉에 담긴 시대정신과 의미

조선욱 보좌관(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



5월 20일 20대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적용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올해 12월부터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되는, 1차 고용안전망에 들어오게 된다.

1995년부터 도입된 고용보험은 1998년 외환 위기와 2009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임금근로자만 보호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한계로 ‘일을 하는 노동자 임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노동 등 급변하는 산업구조가 만들어낸 고용형태의 다변화는 광범위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온 것이다.

현재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 2,650만 명 중 절반 가까운 인원이 고용보험에 가입조차 되지 못해 실직 시 경제적 어려움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한다.

**조선욱**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구병)의 보좌관이다. 19대 국회부터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n번방 방지법 패키지법안’ 등을 발의하여 통과시켰다.

## 고용보험조차 가입할 수 없었던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 예술인

한정애 국회의원은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당연 적용 법안에 이어 2018년 11월 6일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의 고용보험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 개정안은 수차례의 노사정 논의와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에 기반을 둔 내용이었다.

동 법안이 발의된 직후인 11월 20일 야당(자유한국당) 소속 환노위 위원장과 간사, 환노위 의원들은 한정애의원안의 문제점을 내용으로 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주요 요지는,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의무 적용시 전체 보험설계사 10명 중 4명이 퇴출 된다’는 것과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는 개인사업자로 근로자성이 부인되고 있기에 사회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은 법리상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였다. 주장의 토대는 보험협회의 연구용역 결과였다.

이후 야당은 ‘특수고용직’ 관련 노동 법안 논의에 일체 동의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예술인의 고용보험 의무적용도 법안심의를 위한 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와 법안소위 처리 법안을  
여야 사전 합의를 거쳐도록 하고 있음.)

## 코로나19가 드러내준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 예술인

그러나 2월부터 불어 닥친 코로나19의 여파는 모든 경제 활동을 위축시켰다. 이에 임시·일용직 노동자, 자영업자와 문화예술 종사자들은 위축된 경제활동의 결과를 즉각적으로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다. 제21대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이러한 실태를 확인한 여야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국회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민생 법안을 처리하

기로 합의했다. 노동법을 처리하는 환경노동위원회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구직자취업촉진법)과 출퇴근산재인정 소급 적용 등 다수의 민생 법안 처리에 여야간 이견이 없었지만 고용보험법 확대에는 경영계의 부담을 이유로 야당에서 반대하였다.

논의를 거듭한 결과 20대 국회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만이라도 적용하자는 합의에 이르렀고 결과적으로 고용보험법안은 특수고용직과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등의 의무적용을 담은 원안에서 ‘예술인만 의무적용’하는 환노위 대안으로 처리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며 임금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실직 시 실업급여를,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은 예술인의 70% 이상이 프리랜서라는 점에서 사회보험 역사상 획기적인 사건이다. 경영계가 특고의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징표로 내세운, ‘노무종속성’과 ‘전속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사회보험의 경우 경제·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경영계는 오랜 세월 노동자성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그 징표인 특정 사업주에 대한 전속성과, 종속적인 노무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특고의 사회보험 가입을 막아왔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에 집중되어 경영계의 주장이 잘못됨을 반증하였다. 이제 이념이나 논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보호가 누구에게 더 필요한지 실사구시의 관점으로 사회문제를 보아야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코로나19가 가르쳐준 셈이다.

##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 가입, 고용안전망 확대의 첫 신호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 가입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임금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던 고용보험의 문턱이 낮아졌다. 이제 대리운전, 퀵서비스, 보험설계사, 캐디 등 특수고용직과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의 가입은 더욱 수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더욱 다양하고 분절된 형태로 일해야 하는 취업자들에 절실한 고용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특례로 처리한 것은 기술상의 조치일뿐 달라지는 것은 없다. 평상시 활동하면서 낸 보험료(사업주, 예술노동자 각 0.8%씩)로 실직이나 소득 상실시 일정기간동안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다음 작품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출산 후 급여 역시 일반노동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술인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 조치는 고용보험이 임금근로자 중심에서 취업자로 고용안전망 역할을 확대하는 첫 신호인 것이다. ▲

#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적용법〉 통과, 다시 예술인의 목소리에 주목할 때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적용법〉이 가결되기 일주일 전, 종로구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간담회가 열렸다. 예술현장에 있는 7명의 예술인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정희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가 함께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예술인의 경제적 피해가 큰 가운데 예술인 대상 고용보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고용안전망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5월 20일, 모두의 바람대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시행에 앞서 필요한 점도, 아쉬운 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간담회 참석 등 꾸준히 목소리를 냈던 7명의 예술인에게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적용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예술인의 고용보험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오경미  
문화예술노동연대  
사무국장

예술이라는 창작활동에 제대로 된 가치가 매겨지지 않을 때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해 고용보험은 예술인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고용보험이 해결된다고 예술인들의 생활이 하루아침에 윤택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적용법〉 통과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가 예술활동에 대한 가치를 재고하여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착되었으면 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적용법〉 시행에 앞서 최대한 많은 장르와 분야의 현장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집해 시행령이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각 예술분야의 특수성을 최대한 고려해 다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 진입한 예술인과 경력단절 예술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대상의 범위를 최대한 넓혀주시길 바란다. 격차가 매우 상이한 각 분야의 생태계를 꼼꼼하게 살펴 시행령을 만들어졌으면 한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적용법〉의 정착과 개선을 위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담부서 역시 필요할 것이다.

해당 법안이 특례법으로 통과된 점이 가장 아쉽다. 예술인들은 특혜도 특례도 아닌,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체계 전체를 수정해 예술인을 모법의 체계 안으로 포섭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주민으로서 안전한 창작환경이 조성되기를



이종승  
공연예술인노동조합  
위원장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적용법〉이 통과됐다. 예술인들이 복지 사각지대를 벗어나 안전한 창작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이 제일 먼저 들었다. 특례로 개정된 점이 아쉽지만, 이는 예술노동자로서 노동시간과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첫걸음이다.

11월에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분야별로 담겨야 할 내용이 많다. 특히 예술은 분야가 다양한 만큼 노동조건 또한 다양하다. 그러므로 근로증명이 다양하게 설계되어 분야별 세밀한 시행령이 마련되고, 전업예술인 등 모든 예술활동의 예술인을 포함해야 한다. 임금이 일정하지 않은 점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다. 공연예술계의 경우 지원을 목적으로 같은 입장의 예술인 단체의 대표가 되기도 하는데, 이들에게 고용주라는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계약서 작성 자체가 꺼려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 시범기간 등을 통해 대책을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

법안이 통과된 지금,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적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많아질 것 희망한다. 담당지원센터를 만들거나 현장예술인을 직접 만나는 TF팀을 구성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해서 예술인 고용보험 개정법이 시행되기를 바란다.

**시혜복지가 아닌  
'예술노동'으로생계를 이어가는  
'예술노동자'로서의  
사회안전망 필요**

이번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적용법>이 문화와 예술, 예술인, 예술노동에 대한 관점을 전환시킬 기회일지도 모른다. 생활문화, 마을예술 등으로 불리며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활동 등 수행당사자의 예술노동이 고용보험의 대상으로 포괄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의 씨줄과 날줄이 옹골 꿰어진 게 아닐 수 있다. 예술활동 수입만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지만 예술을 포기하지 않은 수많은 문화예술노동 당사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사회적 안전망으로 제시된 예술인 고용 보험을 하나 제정했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사회현실에 맞게 개정해 '노동의 범주'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전담부서 설치, 다양한 고용보험료 산출 기준 성립, 증빙자료의 다양화, 파생 소득의 현실적 대책마련 등의 내용이 시행령에 담겨야 할 것이다. 외에도 뮤지션의 사무 행정적 운용 지원과 같이 아직 논의되어야 할 부분은 많지만, 예술은 누군가가 하는 특별한 것으로 이해하는 인식 대신 '예술노동자'로서 그에 합당한 사회안전망이 추진되길 바란다.



이신희  
뮤지션

**잘된 특례보다  
한 명의 근로자로서  
수수하게 인정받기를**

지난 14일에 열린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관련 예술계 간담회'에서 각 분야 대표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고민하는 부분이 서로 일치한다는 점에 위안을 얻었고, 개인적으로는 작가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고민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협업이 어려워 개인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사각지대 안에서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는 셈인데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해줘서 고맙다.

예술인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연다며 흥분한 분위기지만 중요한 게 빠졌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제외되고 문화예술인에게는 특례조항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예술인들은 특별대우를 바라지 않는다. 예술인이 특례 적용되었으므로 함께 논의되었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선례를 피해갈 수 없다.

앞으로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려면 우선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불합리한 계약과 불공정한 관행을 어떻게 해결하려 애쓰는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초단기로 일하는 작가나 무명 예술인들이 어떻게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고려되어야 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해 상대가 화가 났다면 왜 화가 났는지도 들어보며 함께 나아가야 한다.



민구  
한국작가회의 사무처장

**다른 분야와 동일한 고용보험이  
예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 필요**

고용보험법 개정에 목소리를 내었지만, 사실 고용자가 없어 적용이 쉽지 않은 분야라는 생각이 컸다. 하지만 전 국민 고용보험의 목표를 두고 실행되는 것에 놀랐다. 예술인의 불규칙한 고용에 대한 불안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데 첫걸음을 뚝 것 같아 기대가 크다. 개정될 고용 보험법에 모든 예술인이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강력한 행정 조치나 별도의 지원책도 검토되어야 한다.

6개월 후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우려되긴 하지만, 이번처럼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만 적용되는 사회보험이나 복지 등이 예술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거라 생각한다. 이번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적용법>처럼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하는 업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된다.



정인석  
아이엠컬처 대표이사

**계속해서 예술인들의  
근로자성을 보장하고  
그 범위가 확대되기를**

지금까지 예술인들은 불공정한 고용관계로 인해 구두계약 또는 "우리가 남이가?"하는 식의 무책임한 계약에도 참고 넘어가야 했다. 하지만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적용법>으로 문서화된 계약서가 많이 쓰이게 될 거라고 예상된다. 당장은 예술인을 둘러싼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크게 변하진 않더라도, 이번 기회로 말미암아 표준계약서 의무사용이나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시 적극적인 구제 등 단단한 사회안전망 속에서 예술인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예술인들의 계약이나 근로형태가 다양한 만큼 현실성 있고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보험료율 적용을 기대해본다.



송창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대협협력국장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적용법>,  
가야 할 길은 많지만  
예술인의 보호막이 될 첫발**

의견 취합과 제도적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아직 가야할 길이 많지만 예술인들의 고용보험을 통한 보호막 형성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예술계 상황을 반영해서 법안을 개정하기 힘들다는 것은 이해된다. 하지만 예술 현장의 현실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급한 대로 법안만 만들어 놓고 예술인들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은 했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전시행정이나 이름뿐인 법이 되지 않도록 시행에 있어서 세부 사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시행령에 앞서 예술의 분야별로 특이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에 따른 세부적 안전망이 필요할 것이다. 행정적 편의 때문이든 형평성 때문이든 이번 법안이 포괄적인 것은 사실이다. 무용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법안은 무용인들에게 현실성이 거의 없는 것처럼, 같은 공연예술이기는 하나 연극이나 뮤지컬 등 장기공연 위주의 예술분야와 달리 무용과 같은 초단기공연 위주인 분야의 특성 반영도 필요할 것이다.



이성희  
한국무용협회 사무국장

# 행복한 예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시작이다

작가 이영주



400회 이상 전시회 참여, 인문학 강사이자 작가, 복합문화공간 설립. 예술의 확장성을 몸소 실천해온 이영주 작가가 걸어온 길이다. 그 길을 살펴보면 본격적인 활동이 10년 조금 넘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작가의 180도 바뀐 삶의 시작은 만학도로 대학에 진학하면서부터다. 그래서일까. “꿈이 있는 인생은 길다”, “결과보다 시작하려는 용기와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그의 말이 어렵지 않게 와닿는다.

글 편집부 / 사진 이영주



〈나를 찾아서〉 2013

## 기슴을 뚫게 하는 행복의 예술

“당당하고, 즐겁게 뽀뽀하고 편(Fun)한 삶을 만들어가는 이영주입니다.” 유쾌한 기운으로 인사를 전하는 이영주 작가.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10년 전만 해도 지금 같은 당당함과 거리가 멀었다. 어린 시절 상처로 자존감 낮았던 아이는 결혼이라는 새로운 인생을 선택했고, ‘미술 선생님’이라는 꿈 대신 육아와 가사에 전념해야 했다. 그런 작가의 인생은 마흔 무렵에 달라졌다. 미대에 입학해 딸 또래 친구들과 공부하게 되면서부터다. 이후 그림을 그릴 때마다 피하고 싶었던 계단이 제일 먼저 떠올랐다고 한다. “어렸을 때부터 계단에서 잘 넘어졌어요. 징크스였던 거죠. 그림으로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작가는 높은 곳을 향해 걸어 올라가는 계단에서 만학도로서의 모습도 찾았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공부하고, 노력하며 성장하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도 그 무렵에 완성됐다. “우리 사회상이 담긴 〈나를 찾아서〉는 웅장하고 매우 복잡한 계단 속에서 여러 형태의 제 모습이 담겨있어요. 그림을 완성하면서 진정한 꿈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쉬운 것은 아니었다. 작가는 몰랐던 내면의 우울감과 마주해야 할 때도 있었다고 한다. “그림 시작 초반에 대부분의 지도교수님은 밝은 색채를 썼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어릴 적부터 생긴 마음의 벽은 쉽게 허물 수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 조언으로 작가는 자신의 그림으로 문제를 들여다보고 치유하게 되었다고. “졸업 후 참여한 〈행복 나무〉전에서 많은 분들께 ‘그림이 행복해 보인다’는 축하와 격려를 받았어요. 꿈을 향해 열심히 살다 보니 많은 것을 이루고, 알 수 없는 우울증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행복 바이러스는 이영주 작가에게 또 다른 열정을 갖게 했다. 꿈꾸는 인생에 관한 도서 〈나도 뽀뽀한 예술가로 살고 싶다〉를 출간한 것과 올해 복합문화공간 ‘아트팩토리’ 오픈을 준비중이라는 것. “인생은 예측할 수 없어요. 늦었다고 생각한 마흔 살에 꿈을 찾는 작가가 된 걸 보면요. 저에게 그림이 매개체였듯이 누구든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술은 특별한 것이 아닌 좋아하는 것을 찾아 일상을 행복한 감성으로 바꾸는 것이라 생각해요.”



왼쪽부터  
이영주 작가,  
최지승 학생,  
최지영 작가

### 서로를 본받는 가족의 힘

“제 꿈은 22살에 멈춰있었어요. 그러다 그림을 배우고 첫 개인전이라는 꿈을 이뤘습니다. 이후 딸이 미대에 진학하며 모녀전시회를 꿈꾸게 됐습니다. 딸이랑 같은 길을 걸으며 준비한 전시라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함께 걷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어줄 때가 있다. 이영주 작가에게 큰 딸, 최지영 작가는 그런 존재다. “모녀전은 졸업 후 저의 첫 외부전시였어요. 작가의 길을 먼저 걸어난 엄마와 전시를 하다니. 제가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접할 기회가 많았다는 최지영 작가는 자연스럽게 그림으로 사람들의 공감과 감동을 이끌어내고 싶었다고 한다. 현재 그는 진입예술인으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반영된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아들 최지승도 미술학도로서 예술에 남다른 열정을 가졌다.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이영주 작가는 엄마이기 전에 예술가로서 조언을 건넸다고. “현실의 벽에 부딪혀 원하던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죠. 군대를

제대하고 이상과 현실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예술은 한 가지 방향이 아닌 다양한 경험과 시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며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어요.” 그렇게 대학에서 조소를 공부하고 있는 최지승 학생은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같은 대상이어도 재료에 따라 달라지는 트렌디한 조소의 매력에 푹 빠졌다.  
현재 두 자녀 모두 활발한 예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지영 작가에게 이영주 작가는 배울 점이 많은 선배다. “꾸준히 작품활동과 전시를 하고, 책을 출간하는 등 새로운 분야에도 전하는 열정을 배우고 싶습니다.” 최지승 학생은 이영주 작가에게서 두려움을 마주하는 법을 배웠다고 한다. “자신의 나약한 점을 마주하고 작품으로 멋지게 표현합니다. 아직은 학생이라 작업을 시작할 때 두려움이 크지만, 도전적인 모습을 본받아 용기 있게 시도하려고합니다.” 서로가 좋은 자극제라고 말하는 그들은 가족이자 예술을 함께하는 선배이고 동료다.



### 소박한 일상이 연결하는 꿈의 다리

“하나의 큰 꿈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처음부터 거대한 꿈은 삶을 지치게 만들어요. 소박한 꿈을 이룬다 보면 다른 꿈도 꾸게 됩니다.” 처음 그림을 배울 당시에 회상하던 이영주 작가는 올 6월에 완공될 복합문화공간 아트팩토리에 대한 설명을 이어간다. 이름처럼 예술이 탄생하는 공장으로서 다양한 콘텐츠가 운영될 예정이다. “저는 혼자 작업한 시간이 많았어요. 외로울 때도 있었지요. 하지만 아트팩토리는 다 같이 모여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으며 수강생들의 작품도 전시하는 친목공간이 될 거예요. 누구나 예술가가 되는 복합문화공간인 거죠.”  
이영주 작가는 지금도 작품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과 일상의 소중함을 찾는다. “그림을 그리고, 책을 쓰다 보면 내면에 잠재된 원초적 본능이 자극받더라고요. 그때 강한 행복과 설렘을 느끼고 있습니다.”  
색다른 행복을 위해 이영주 작가는 또 다른 꿈을 그리고 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를 구상하는 중이다. “허황된 꿈이 아닌 현실적인 희망을 갖고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동화를 쓰고 싶어요. 글자가 주는 강한 힘과 그림으로 풀어나가는 감성을 담은 동화책예요.”  
마지막으로 그와 같은 신진예술인에게 전하고픈 메시지가 있는지 물었다. “누구나 예술적인 감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또한 누구나 삶이 행복하길 바라구요. 물질과 편견이 아닌 진정한 행복이야말로 모두가 예술가가 되는 길이 아닐까요?” ▲

### 이영주

만학도로 동양화과에 입학, 6년간 대학과 대학원을 전역 장학금으로 졸업했다. 11회의 개인전, 400회 이상의 초대전·단체전에 참여했으며, <나도 뽀뽀Fun한 예술가로 살고 싶다>의 저자이다. 현재는 인문학 강사이자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국미술협회와 한국청조미술협회 울산지회부회장이다



<사회속으로> 2016  
<나를 찾아서> 2016

# 법률과 소설 사이, 2%의 다름

도진기 변호사·소설가



‘왜 법률가이면서 소설을 쓰는가’하는 주제의 원고 의뢰는 난감하다. 판사로 일하면서 추리 소설을 출간했으니 ‘파격의 인간이 아닐까’하는 시선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왔다 갔다 하면서도 북을 떠나지 못하는 나침반 바늘 정도의 인생이었다. 조직원은 당연히 조직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조직 논리와 관습에 적응하고 몸을 맞추어야 한다. 반면 ‘판사’라는 직업은 독특한 면이 있다. 독립기관이라는 특성상 조직 눈치를 덜 보고 자신의 뜻대로 사는 길도 가능하다.

수직의 삶과 수평의 삶. 내가 판사로서 첫발을 내디딜 때, 이 두 길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느꼈다. 둘 다 가치 있겠지만, 난 후자를 택했다. 그게 내 기질에 맞았다. 적어도 2~30년간 판사로 일할 텐데 나한테 맞지 않는 인생은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았다. 그렇다 해도, 내 기질이 반골 쪽은 아니었다. 의지대로 산다고 해도 법률가라는 한계를 깨버리는 수준까지는 아니었고, 그 틀 안에서 나름의 몸부림을 쳤던 것 같다. 어항 벽을 쿵쿵 머리로 들이받으며 돌아다니는 물고기라고나 할까.

**도진기**  
서울대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94년 법관이 되었다. 2010년 『선택』으로 한국추리작가협회 미스터리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작가로서의 삶을 병행해오다 2017년,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공직을 떠나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변호사 고진 시리즈』를 비롯해 『판결의 재구성』, 『합리적 의심』 등 다수를 펴냈다.

2007년에 간통죄 위헌제청을 했다. 지금은 ‘간통을 왜 국가가 처벌해?’ 하는 사고가 당연하지만 당시엔 크게 시끄러웠다. 간통죄에 논리적으로 동의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판사가 실정법에 어긋나게 무죄판결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위헌제청을 했다. 다른 눈치를 볼 이유는 없었다. 법원에서는 크게 놀라 언론에 새어나갈까 쉬쉬했지만, 결국 9시 뉴스에까지 보도가 되었고,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법원 고위층의 나를 향한 시선이 불편한 쪽으로 기울었다고 느끼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였다.

몇 년 후엔 스페인 연수를 떠났다. 법관들은 일정한 근무 기간을 채우면 1년 정도 해외연수 기회가 주어진다. 그때까지는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이 전부였다. 난 알파벳부터 시작해 스페인어를 새로 공부했고, 법원 1호로 스페인 연수자가 되었다. 스페인? 주위 사람들은 놀랐지만, 이내 부러움의 눈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후 줄줄이 스페인 연수자가 생겨났다. 결과적으로 내가 선택한 스페인에서의 1년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그 이후로는 줄곧 완만한 내리막).

마흔이 넘어 추리소설을 썼다. 또 뉴스에 나오고 화제가 되었다. 그게 그렇게 남다른 일인지, 그땐 몰랐다. 그저 어린 시절부터 추리, 무협, 판타지가 좋았고, 너무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 안에서 창작 욕구가 꿈틀댔고, 난 그걸 놀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뿐이다. 오해도 많았다. 언제 글을 쓰는지,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지... 시간은 대개 문제 되지 않는다. 골프도 등산도 하지 않고, 드라마도 보지 않으니 시간은 얼마든지 생겨났다. 실리는 없었다. 글 쓰느라 눈이 침침해졌고, 출판시장은 최악이었다. 그래도 내 안의 상상력, 창작열이 글을 쓰게끔 했다. 그게 솟아나는데 안 쓸 수 없었다. 작은 이유를 덧붙이자면, 창작은 판사직의 중압감을 잠시 잊는 숨구멍이기도 했다.

이야기가 조금 새지만, 판사는 내게 애증의 직업이다. 애정은 이런 면이다. 일상적인 불편 정도가 아니라 극단적인 고통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 내가 물가를 잡는다면 하는 거창한 일은 못해도, 구렁텅이에 빠진 ‘개인’을 도울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이 힘든 작업을 지탱하게 해준다. 반대로 싫은 부분도 있다. 판사는 조그만 실수로 모든 걸 잃을 수 있다. 매사에 조심스럽고 사는 폭이 좁아진다.

법원은 분노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자칫 그 타깃이 심판인 판사에게 향할 수 있다. 판사는 공격자와 맞서 싸울 수 없다. 판결문을 떠나서는 일체 말할 수 없으니까. 일상도 그저 그렇다. 외부의 시선과 실재는 많이 다르다. 타이타닉의 1등 칸에도, 3등 칸에도 타지 못하는 어정쩡한 입장이다. 그저 외로울 뿐이다. 생활인으로서 이 직업이 참 별로라고 느낄 때가 많았다. 그럼 난 이걸 왜 하고 있는가. 혹시, 그저 이미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왔기 때문은 아닐까.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글을 쓰기 잘했다고 생각한다. 법률이 신성한 생계라면, 소설은 내 삶의 의미다. 처음 책을 낸 후, 현직 판사가 소설을 쓴 경우가 있었나 찾아보았다. 일본이나 중국에는 없는 것 같았다. 다만 독일에 베른하르트 솔링크가 있었다. ‘세계 최초’에는 실패했지만, 지인들은 농담 삼아 ‘동북아 최초의 판사 출신 소설가’라고 부른다.

돌이켜보면 난 혁명적으로 살아오지 않았다. 좁은 길을 걸어야 하는 법률가 인생에서 ‘약간 달리’ 살았던 것 같다. 그런데 그게 동료들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었고, 이제는 떠나온 곳이 아득해서 보이지도 않게 돼버렸다. 아이스크림의 토핑이 맛을 결정하듯, 2%의 차이가 모든 걸 만들었다.

# 텅 빈 어둠에서 감동을 빛어내는 이 누구인가?

태초에 어둠이 있었다.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인류의 시작은 어둠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어둠이 있고, 그 후에 빛이 생겼다. 무대의 이야기의 시작도 어둠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사이를 뚫고 서서히 빛이 흐르면서 우리는 감동 속으로 들어가기 마련이다. 무대의 배우를, 그리고 스토리를 색색의 향연으로 돋보이게 하는 이는 누구일까.

글 편집부 / 사진 장은주

# 빛과 색의 마법사

김종석 조명감독





© 뮤지컬 <파이어맨>, 에픽씨어터 제공



© 뮤지컬 <YOU&IT>, EG뮤지컬컴퍼니 제공



© 연극 <반포가리 자작>, 잘한다프로젝트 제공



© 연극 <반포가리 자작>, 잘한다프로젝트 제공



**안녕하세요. 김종석 감독님. 언제, 어떻게 조명이라는 업에 입문을 하셨나요?**

조명은 2004년 난타 공연의 무대크루로 참여하면서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난타크루는 아르바이트 삼아 대학 동기의 추천으로 하게 됐는데, 그때 무대 옆에서 본 조명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조명을 했던 형들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난타 공연 조명회사 소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조명디자인과 조명감독이 하는 모든 것을 그 당시에 배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조명감독이 되기 위해 그 당시 어떤 것들을 배우신 건가요?**

조명감독이 되기 전에는 보통 조명크루부터 시작해서 무대조명의 기술적인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프로그래머나 어시스턴트로 작품에 참여하면서 디자인을 배우고 그 후 조명디자이너가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이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요즘에는 대학을 나오자마자 디자인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저는 7년 정도 회사 소속으로 일했고, 이후부터는 프리랜서로 활동했습니다.

**조명감독이라는 일은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되나요?**

예전에는 밤샘 작업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야간 작업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보통 조명감독은 프로덕션 회의부터 연출부와의 디자인 회의, 공연 연습에 참여합니다. 보통 3번에서 5번 정도의 공연 연습을 참관하고, 중간중간 극장과 스태프 회의를 진행하면서 큰 틀을 잡습니다. 그 후 연습을 더 보며 작업을 마무리하면 본격적인 극장 셋업(Set up)에 들어갑니다. 정해진 소요 시간은 없고 전체적인 작업 흐름에 맞춰 진행합니다.

**작품 중에서 감독님이 주로 하신 장르가 있으신가요?**

장르를 크게 구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조명의 매력이기도 하고요. 그 덕분에 연극, 국악, 뮤지컬, 어린이 공연 등 조명이 필요한 여러 무대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 조명디자이너, 조명감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조명디자이너는 연출가나 예술가의 상상을 더해주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준비해 온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극장에 들어간다면 준비가 덜 된 것이지요. 가능한 많이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데, 무대 위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하셨는지요?

네,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현재 하는 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성격 상 무대 뒤를 더 좋아하고요. 무대와 상관없이, 관객과 직접 마주하지 않더라도 같이 공연을 만들어가는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요?

메르스 때도 현재 코로나19 사태처럼 공연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니다. 대부분 공연하는 사람들이 2~4월은 거의 공연을 멈췄습니다. 5월 말부터는 다들 힘내서 공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사업 덕분에 공연이 올라가다 보니 연초에 비해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저도 하나 둘씩 작업을 시작하고 있고요. 온라인 공연도 있고, 7월 중순부터는 대학로 드림아트센터에서 뮤지컬 <YOU&IT>을 올리기 위한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 조명감독을 하시면서 힘든 부분은 무엇입니까?

조명뿐만 아니라 아직도 공연 자체가 힘들어지거나 망하면 스태프들의 페이를 제일 늦게 주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요. 또한 프리랜서로서 같이 하던 사람들의 작업이 겹쳤을 때가 있습니다. 애정하는 공연 두 개가 겹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를 포기해야 할 때 심적으로 힘이 듭니다.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공연, 온라인 공연 등이 트렌드로 자리잡을 전망인데요. 향후 무대조명의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 확실히 공연계에 있는 모든 분이 힘들어지겠죠. 그래도 공연을 만드는 예술인들의 의지가 있으니까, 공연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연이 계속 이어진다면, 조명도 계속 창작이 될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관객 여러분이 공연을 더욱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 나에게 '조명은 ○○○이다'라고 정의한다면?

조명은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이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느꼈습니다.

### 마지막으로 감독님의 꿈이 궁금합니다.

바라는 건 크게 없습니다. 지금 같이 작품하고 있는 사람들과 오래오래 같은 곳을 보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에도 함께 작업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

#### 김종석



2004년 공연계에 입문, 17년째 조명 한 길을 걸어오고 있다. 대학에서는 문예창작을 전공했지만, 이제는 빛을 조절하여 공간을 표현하고, 캐릭터의 성격을 창조하는 일을 천직이라 여기고 있다. 대표 작품으로는 <파이어맨>, <종이아빠> 등의 롱런 스테디셀러 연극과 2019 제13회 DIMF 창작뮤지컬 상을 수상한 뮤지컬 <YOU&IT> 등 다수가 있다.



# Viva! Artists



- 50** KAWF 레시피
- 52** KAWF 디스크
- 54** KAWF 상담실
- 56** KAWF News
- 58** 예술인패스


 임신된 재료로   
 완성하는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 사업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활성화를 위해 최고의 재료로 만들어진 지원 사업이 있다.  
 바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 사업.  
 이번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을 위한 특별지원도 더해진다.  
 좋은 재료만 쫙쫙 골라 만들었다고 하니 같이 살펴보자.

<p><b>01</b></p> <p>증명</p> 	<p><b>02</b></p> <p>대상</p> 	<p><b>03</b></p> <p>프리랜서</p> 
<p>예술활동증명 완료하셨나요? 그렇다면 다음 단계로 따라와주세요! 아직 받지 못한 예술인도 이번 지원 사업은 간소화된 절차로 신청 가능합니다.</p>	<p>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혹은 예술단체라면 신청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준비해주세요.</p>	<p>계약서가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올해부터는 표준계약 체결한 예술인뿐만 아니라 표준계약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도 지원합니다.</p>
<p><b>04</b></p> <p>코로나19 특별대상</p> 	<p><b>05</b></p> <p>신청</p> 	<p><b>06</b></p> <p>결과</p> 
<p>코로나19로 휴직·휴업·계약 중단 등의 어려움을 겪은 프리랜서 예술인, 근로자인 예술인, 문화예술사업자도 주목해주세요. 코로나19 피해기간에는 사회보험료 80%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p>	<p>신청서, 계약서, 사실확인서 등 준비한 서류를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 접수하면 끝! 단체는 전자우편(support@kawf.kr)으로 접수해주세요.</p>	<p>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완성됐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직접 연락드릴게요!</p>
<p>* 자료준비, 신청절차 등의 자세한 내용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확인하세요.</p>		

**Tip** 예술활동증명 재신청 기간을 확인해주세요!  
 유효기간 만료 전 예술활동증명 재신청 절차를 밟아주세요.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재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 블루, 함께 이겨내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다. 시시각각 터지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 예술활동 중단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으로 스트레스를 겪는 예술인들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비롯해 관계 기관들이 마음 챙기기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심리상담 관련 정보들을 모아보았다.

## (사)한국심리학회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무료 심리상담 진행

사단법인 한국심리학회에서는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코로나19 특별 대책위원회'를 구성, 3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차 무료 심리상담을 실시한다. 감염병으로 인한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심리적 방역 차원의 전문 심리상담으로, 이 상담에는 한국심리학회 소속 심리상담 전공 교수 및 1급 심리상담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 국가트라우마센터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입원치료 및 격리과정, 감염병 위험 노출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확진자와 그 가족, 격리 경험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를 돕기 위해 감염 확진자 및 가족은 국가트라우마센터(☎02-2204-0001~2) 및 국립정신의료기관에서 권역별 유선전화 또는 대면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자가격리 및 일반인은 24시간 심리지원 핫라인(☎1577-0199)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한 심리상담 전개

"타인을 경계하게 되고 불안감을 떨칠 수 없어 잠까지 설친다"는 감염병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수도권)를 비롯해 영남권국가트라우마센터(경상권), 국립나주병원(전라·제주권), 국립춘천병원(강원권), 국립공주병원(충청권), 그리고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는 피해를 겪는 이들을 위해 전화와 대면상담을 통한 정신건강 평가를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치료를 연계, 실시하고 있다.

##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및 예술인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실시

서울시 산하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계위기에 직면한 노동자, 예술인들이 두려움, 우울감, 압박감 등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일시적 전문심리상담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서울지역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예술인도 포함된다. 예약 후 전화상담으로 진행된다.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월~금)까지이며 총 2회에 걸쳐 무료로 실시된다.

# 예술인이 묻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답하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동안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혹은 사소해서 못했던 질문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자세히 답변해드립니다.

Q

프리랜서 무용가입니다. 장르상 공연이나 연습 중에 부상이 잦은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단체에 속하지 않다보니 부담이 크더라고요. 재단에서 저같은 예술인을 위한 보험료 지원사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업 인가요?

A

프리랜서 예술인분들도 개인자격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 여러분의 산재보험 가입을 돕고,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예술인의 보험료를 5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월 보험료는 1등급(월 15,040원)부터 12등급(월 48,670원) 중 원하는 등급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을 미완료하신 예술인께서는 예술활동증명 특례 신청과 동시에 산재보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인 산재보험'을 통해 예술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회보험팀 02-3668-0200

Q

생애 처음으로 연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웹툰 작가입니다. 너무 기다리던 순간이었는데 막상 계약서를 받아보니 복잡한 법률 용어에 저작권까지... 어렵기만 합니다. 이대로 계약해도 괜찮은걸까요?

A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는 문화예술계 전문 변호사와 노무사가 상주하며, 예술인분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컨설팅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이메일) 및 방문을 통해 1:1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 검토 외에도 저작권 문의, 법률, 노무 등 예술활동 중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드리는 재단으로 신청 및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sinmungo@kawf.kr, 문의: 권리보장팀 02-3668-0200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정착을 위해 종합적 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 운영과 함께 예술인들을 위한 계약 및 저작권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문화 예술 사업자를 위한 교육과 계약 자문을 통해 예술계 서면계약 확대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2013년부터 계약 실무에 대한 교육을 계속해 온 재단은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장르별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계약 및 저작권 교육)을 진행했다. 2020년 상반기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계약 및 저작권 교육)은 공연, 문학, 미술, 대중 음악, 만화 등 총 5개 분야의 저작권 개념과 계

약 시 유의사항에 대한 것으로 재단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 서울여자대학교 대학로캠퍼스 아름관 501호에서 무료로 진행됐으며,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에 한해 온라인으로 신청받았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교육 당일 수강생 간 충분한 거리를 두고 좌석을 배치하고 체온측정, 손소독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조치도 진행됐다. 재단은 서면계약 조사권 신설에 앞서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13개의 장르별 주요 협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고를 독려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는 예술계 내 계약관행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한 관계자는 "여전히 많은 예술인이 구두계약 또는 무계약 형태로 예술활동을 하다 보니 공연이나 전시, 행사가 취소되어도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개정법 시행을 계기로 예술계 계약의 불공한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면계약 위반에 대한 신고와 상담을 원하는 예술인 및 문화예술 사업자는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유선(☎02-3668-0200)으로 문의할 수 있다.

**2020년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이하 창작디딤돌)을 확대 지원한다. 지난 2월, 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술인들의 피해가 급증하자 코로나19 피해 예술인을 위한 가점(2점)을 긴급히 신설해 운영한 바 있다. 총 6,000명을 지원할 예정이었던 상반기 창작디딤돌 신청자는 총 14,803명으로, 이 가운데 기준(소득인정액 120%) 이내에 해당하는 예술인이 14,325명에 달해 전체 신청자의 96%였다. 상반기 창작디딤돌의 최대 배점은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가점을 포함해 13점\*이다 (배점표 붙임 참조). 배점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약 1,500명의 동점자가 발생했고, 재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동점자를 포함해 총 7,538명을 지원하게 됐다. 재단 정희섭 대표는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해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하반기 창작디딤돌 신청은 7월 초부터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기준중위소득 8점+최초 수혜자 2점+농·어촌지역예술인 1점+코로나19 피해 예술인 2점=총13점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 예술로(路), 활동비 선지급**



5월 27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 예술로(路)'(이하 예술로) 참여 예술인 709명에게 활동비 8억 7000만 원을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예술로 사업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한 팀을 이뤄, 매칭된 기업·기관이 가지고 있는 이슈를 예술인의 시각으로 풀어낸다. 한 해 1000여 명의 예술인이 200여 개의 기업·기관들과 함께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며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고 있다. 사업 참여 예술인들의 활동비는 약 6개월간 월 120~140만 원이다. 매달 활동이 종료되고 활동보고서를 제출한 후 지급된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예술인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어, 활동비 선지급을 결정하게 됐다. 5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335명에게 1개월 활동비 4억 1000만 원이 완료됐고(7월 25일 지급), 6월~7월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약 374명의 예술인에게도 1개월 활동비 4억 6000만 원이 선지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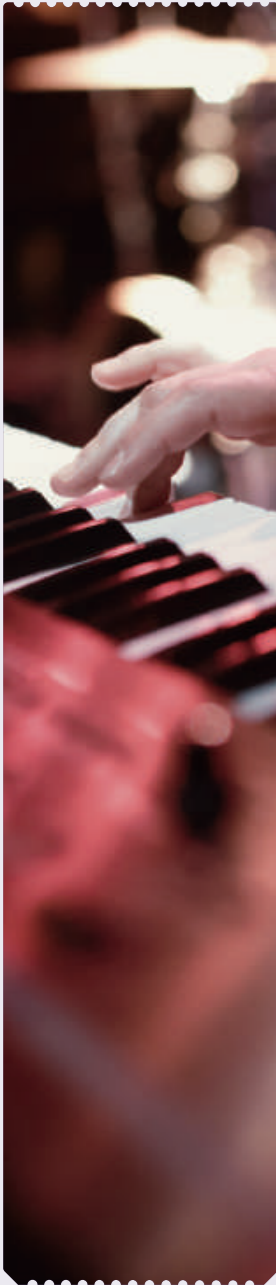
**대표 잠적한 뮤지컬 친정엄마, 배우·제작진 체불임금 받는다**

지난해 10월 제작사 대표가 잠적한 뮤지컬 <친정엄마>의 출연 배우와 제작 스태프들이 밀린 임금 중 일부를 받게 됐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예술인을 돕는 '예술인 신문고'를 통한 첫 소액체당금 지원 사례로, 고용노동부가 프리랜서 중심의 예술인도 '근로자'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뮤지컬 <친정엄마> 피해 예술인 중 25인이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향후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이 받게 될 미지급액은 총 약 8400만 원이다. 이번 결정은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신고받은 사건 중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는 첫 사례다. 소액체당금은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제도로, 예술인들은 대상이 되기 어려웠다. 재단 관계자는 "예술계는 대부분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계약서를 쓰지 않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서를 쓴다 해도 비정기적인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의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술인들의 이런 어려움을 돕기 위해 예술인 신문고를 운영 중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에 대한 수익배분 거부, 지연, 제한에 대해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하고 있다. 정희섭 대표는 "이번 사례로 예술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예술인들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문화예술계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모집**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5월 22일 오후 2시부터 2020년 문화예술계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의 지원자를 모집했다. 이 과정은 예술계의 성평등한 문화 확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술인, 문화예술 및 콘텐츠 분야 종사자와 협·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자 중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된 20여 명의 교육생에게 6월 8일(월)부터 교육을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면교육 시 교육생 간 거리두기 등 안전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일부 강좌는 비대면 강의로 진행될 수 있다. 교육생들은 6월 8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0시간 동안 성평등 정책,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 피해자 지원 체계, 문화예술계 현황 등에 대한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수료 이후 위촉평가를 통과한 교육생은 문화예술계 전문강사로 위촉되어 문화예술 및 콘텐츠 산업 현장에서 활동하게 된다.



Volume.34

**ART PASS**

Artists Welfare Magazine

artpass.kawf.kr



대구오페라하우스

음악극  
〈카르멘〉-대구

2020. 7. 31(금)  
전석 1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20%



부산시민회관

연극  
〈여름은 덥고 겨울은 길다〉

2020. 7. 31(금)~8. 1(토)  
R석 4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20%



국립극장

인생 꽃 같네

2020. 7. 18(토)~7. 19(일)  
전석 3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30%



경기아트센터

경기필하모닉 2020 앤솔러지  
시리즈 IV 〈말러 교향곡 3번〉-수원

2020. 7. 18(토)  
R석 4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30%



용인포은아트홀

노부스 콰르텟  
〈Beethoven & String〉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연주회

2020. 7. 18(토)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10%



부천시민회관

기획공연 〈흥당충전소〉  
두번째달-부천

2020. 7. 17(금)  
전석 15,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30%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2020 아시아 기획전  
〈또 다른 가족을 찾아서〉

2020. 5. 22(금)~8. 23(일)  
입장료 4,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무료



대구미술관

새로운 연대

2020. 6. 16(화)~9. 13(일)  
입장료 1,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700원



호반아트리움

〈아트 인 더 컬러  
(ART in the COLOR)〉展

2020. 7. 3(금)~2021. 2. 28(일)  
입장료 9,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30%



경남도립미술관

자화상제 - 나를보다

2020. 2. 20(목)~9. 16(수)  
입장료 1,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50%



국립현대미술관(관천관)

판화, 판화, 판화

2020. 5. 14(목)~8. 16(일)  
입장료 2,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무료



대구콘서트하우스

대구아티스트워크 시즌 I  
성악 〈음악이 주는 위로:  
Rest&Forest〉

2020. 7. 17(금)  
R석 1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20%



예술의전당

2020 예술의전당 어린이 가족  
페스티벌 〈강아지똥〉

2020. 7. 16(목)~7. 29(수)  
1층석 40,000원  
2층석 25,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40%



부산문화회관

창극 〈변강쇠 점 찍고 옹녀〉-부산

2020. 7. 17(금)~7. 18(토)  
VIP석 70,000원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20%



부산문화회관

뮤지컬  
〈프랭키와 친구들〉- 부산

2020. 7. 1(수)~8. 2(일)  
전석 2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50%



대화로 유니플렉스

뮤지컬 〈더 모먼트〉

2020. 7. 8(수)~9. 6(일)  
R석 66,000원  
S석 44,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30%



대구오페라하우스

렉처오페라  
〈사랑의 묘약〉-대구

2020. 7. 24(금)~7. 25(토)  
전석 2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20%



아신극장

연극 〈오 나의 귀신님〉-대전

2020. 6. 18(목)~8. 23(일)  
전석 35,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5,000원



후암스튜디오

인류의 희망

2020. 7. 21(화)~7. 26(일)  
전석 3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15,000원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오페라단  
〈세비야의 이발사〉

2020. 8. 18(화)~8. 22(토)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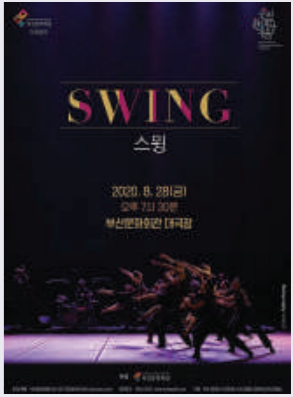


고양아람누리

연극 〈XXL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겨울〉-고양

2020. 8. 21(금)~8. 23(일)  
전석 3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50%



부산문화회관

국립현대무용단 〈스윙〉-부산

2020. 8. 28(금)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20%



나루아트센터

클래식안 앙상블  
〈골별 마야의 모험〉

2020. 7. 30(목)~8. 1(토)  
전석 2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30%



군포문화예술회관

뮤지컬 〈발레〉-군포

2020. 8. 7(금)~8. 8(토)  
전석 2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10%



대전예술의전당

2020 아침을 여는 클래식 8월  
〈작곡가 김효근의 아트팝 가곡 콘서트〉

2020. 8. 11(화)  
전석 1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30%



영화의전당

2020 영화의전당 마티네콘서트  
〈마스터피스 시리즈, 클래식을 만나다 8월〉

2020. 8. 11(화)  
전석 2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50%



예술의전당

어린이 가족 페스티벌  
〈에스메의 여름〉

2020. 8. 1(토)~8. 16(일)  
1층석 40,000원  
2층석 25,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40%



영화의전당

뮤지컬  
〈나는 독립군이 아니다〉-부산

2020. 7. 29(수)~8. 9(일)  
전석 4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50%



부산문화회관

인형극 〈방귀쟁이 며느리〉-부산

2020. 8. 27(목)~10. 25(일)  
전석 2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50%



대구오페라하우스

오페라  
〈사랑의 묘약〉-대구

2020. 8. 27(목)~8. 29(토)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20,000원  
B석 1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20%



경기아트센터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하는 11시의 클래식:  
기울 슈베르트-수원

2020. 8. 28(금)  
R석 20,000원  
S석 1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30%



고양어울림누리  
청춘힐링극,  
브라보 마이 라이프-고양

2020. 8. 29(토)-8. 30(일)  
전석 3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50%



에스24스테이지  
연극 <라스트 세션>

2020. 7. 10(금)~9. 13(일)  
전석 55,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40%



후암스테이지  
절대영도

2020. 7. 28(화)~8. 2(일)  
전석 3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10,000원



예술의전당  
2020 교향악축제-  
부천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020. 8. 1(토)  
R석 4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B석 1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10%



영산아트홀  
이나라 색소폰 독주회

2020. 8. 2(일)  
전석 10,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30%



고양아람누리  
2020 아람누리 마티네콘서트  
<오상진의 스윗 클래식> III  
로맨틱 트리오

2020. 8. 27(목)  
전석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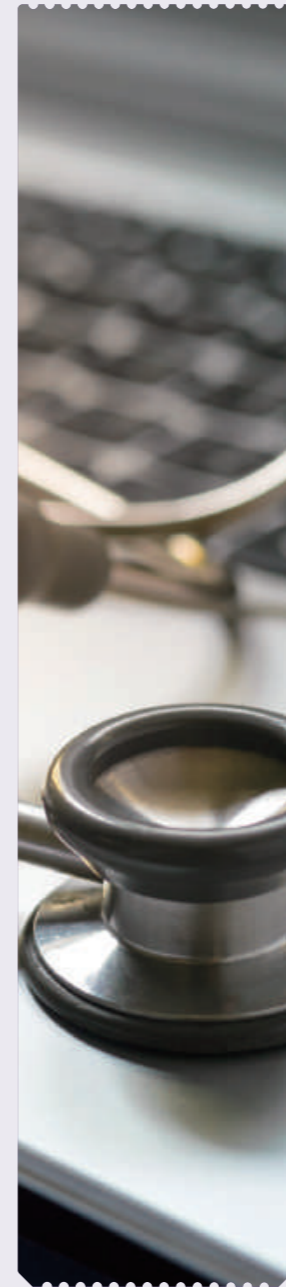
예술인패스 할인 20%



에그린씨어터  
하모니-카

2020. 7. 17(금)~8. 30(일)  
전석 55,000원

예술인패스 할인 50%



Volume.34

ART PASS

Artists Welfare Magazine



artpass.kawf.kr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예술인 건강 혜택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협약에 따라 예술인을 위한 의료 혜택을 제공한다. 예술인패스 소지자가 혜택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 할인(공단 직원 수준으로 제공, 일반수가 대비 약 50% 내외), 독감예방접종 할인, 업무상 특별진찰 시 승인 전 치료 서비스 제공(산재 신청 시 승인 전이라도 공단 소속 병원에서 치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 정보(전국 7개 병원)

연번	병원명	소재지	건강관리센터 정보
1	인천병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46 (구산동)	032)5000-222 www.kcomwel.or.kr/incheon
2	안산병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 87 (일동)	031)5001-112 www.kcomwel.or.kr/ansan
3	창원병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1 (중앙동)	055)2800-481 www.kcomwel.or.kr/changwon
4	순천병원	전남 순천시 조례1길 24(조례동)	061)7207-162 www.kcomwel.or.kr/suncheon
5	대전병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37 (법동)	042)6705-196 www.kcomwel.or.kr/daejeon
6	태백병원	강원도 태백시 보드미길 8(장성동)	033)5803-153~4 www.kcomwel.or.kr/taebaek
7	동해병원	강원도 동해시 하평로 11(평릉동)	033)5303-251 www.kcomwel.or.kr/donghae

더 많은 생활 속 할인은 예술인패스 홈페이지(artpass.kawf.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영화, 방송, 전통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예술인패스 제도를 시행합니다.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예술인패스를 신청하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예술인패스 모바일 페이지(first.kawfartist.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02-3668-0200, artpass@kawf.kr

창작준비금 300만원

#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 창작디딤돌

신청기간: 2020. 7.13(월) ~ 7.31(금)

1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인
- 가구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2

지원규모

- 하반기 7,725명 지원(300만원)
- \*상세 일정 및 내용은 해당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우편접수
- 창작준비금 시스템
  - 온라인(www.kawfartist.net)
  - 우편(등기접수)
- \*현장 방문 신청의 경우 원로, 장애 예술인에 한해 신청 접수 대행

### 창작디딤돌 전용 콜센터 개설

2020년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전용 콜센터를 이용해 주세요!

창작디딤돌 콜센터

02-3668-0253, 0254, 0255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예술가의 안전벨트 예술인 산재보험

- ✓ 예술인 산재보험을 통해 직업 예술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활동을 멈추지 않도록 보험료의 50-90%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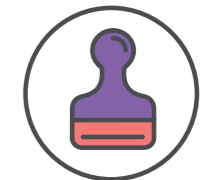
서류 준비

- 통장사본
- 보험료 지원금 환급 계좌
- 예술활동 계약서\*
-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특례신청용 완료자는 해당없음 통장사본만 준비



온라인 가입 신청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가입 완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가입대행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가입 승인

